

비즈테크아이, 위아마그나에 차세대 SAP ERP 구축 완료

재무·공급망 관리 영역 중심 MES 통합 제조업 공략 확대

LG CNS 자회사 비즈테크아이가 대형 부품사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의 SAP Public Cloud ERP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비즈테크아이는 이번 프로젝트 성과를 토대로 향후 ERP와 MES를 통합 구축하는 솔루션을 출시, 제조기업 대상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비즈테크아이는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에서 열린 'SAP NOW AI Tour Korea' 행사에서 현대오트모빌과 함께 패널로 참여해 사례를 발표했다.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은 기존 ERP 시스템의 서비스 종료(EoS) 상황에서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시스템을 검토했다. 글로벌 신뢰성과 확장성, 혁신 기술 측면에서 SAP Public Cloud ERP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도입을 결정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비즈테크아이는 SAP 최신 기술을 활용해 재무·공급망 관리(FCM·SCM) 영

역을 중심으로 ERP를 구축했다. 또한 ERP를 기반으로 기존 MES 등 주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했다. SAP Integration Suite를 적용해 생산오더 전송, 실적 정보 수신 등 핵심 기능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했으며, SAP의 글로벌 Best Practice를 도입해 재재수급 관리와 제조원가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이수진 비즈테크아이 GROW ERP팀장은 "제조기업은 생산 부문 특화 요구사항이 많지만 SAP Cloud ERP는 글로벌 표준 API와 Integration Suite를 제공해 MES와의 연계가 유연하다"며 "실시간 인터페이스 구축으로 생산 현장의 특수한 요구까지 충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즈테크아이는 나아가 LG CNS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FACTOVA'를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용 MES 솔루션을 공동 개발했다. 하반기부터는 SAP Public Cloud ERP와 MES를 통합 구축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출시해 제조기업 고객군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시스템통합 빅4 글로벌 인증 경쟁 사내 IT 전담하다 그룹 AI 리더로

빅테크로부터 경쟁력 인정받아
국내외 대형 사업 수주전 본격화

국내 시스템통합(SI)업계의 '글로벌 인증'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삼성SDS, LG CNS, 현대오트모버, SK AX 등 국내 SI업계 '빅4'가 모두 글로벌 인증을 획득했다. 업계에선 SI 기업들이 사업 역량 신뢰도를 높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국제 인증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SDS는 지난 7월 독일 SAP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IBM, 딜로이트, 후지쯔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SAP가 선정한 '프리미엄 서플라이어'가 됐다. 삼성의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SAP의 주요 서비스를 판매할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 현대오트모버는 모빌리티 테크 영역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모빌리티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정보보안 인증 TISAX의 최고 레벨인 AL3를 취득하는데 성공했다. 앞서 차량용 소프트웨어(SW) 플랫폼 모빌진 클래식 2.0의 전체

모듈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자동차의 안전 무결성을 검증하는 국제 표준인 ASIL-D 인증을 받으며 안전성을 공인받기도 했다.

LG CNS는 지난달 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 AI 앱 빌드 전문기술 역량 인증을 받았다.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생성형 AI 컴퍼티시,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 전문기업 인증도 획득해 3대 클라우드 빅테크로부터 전문 역량을 인정받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SK그룹의 IT 서비스 기업인 SK AX는 6월 AWS의 원올라(OneOLA) 자격을 획득했다. SK AX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SK AX는 AWS가 요구하는 '글로벌 표준 클라우드 진단 체계'를 보유한 글로벌 파트너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I 대기업들은 글로벌 인증이 단순한 '홍보 수단'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신뢰·품질·보안 역량 증명, 파트너십 확장과 내부 프로세스 효율화, 시장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사업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현대차, LG 등 모그룹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금융AX 정조준... SI 빅3 “은행·보험서 돈맥 캔다”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금융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영업 전략을 바꾸거나 인력 보강에 나서며 저마다 사업 경쟁력을 키우는 중이다. 활짝 열린 금융권 인공지능(AI) 전환 시장을 선점하고 매출에 호보 효과까지 거두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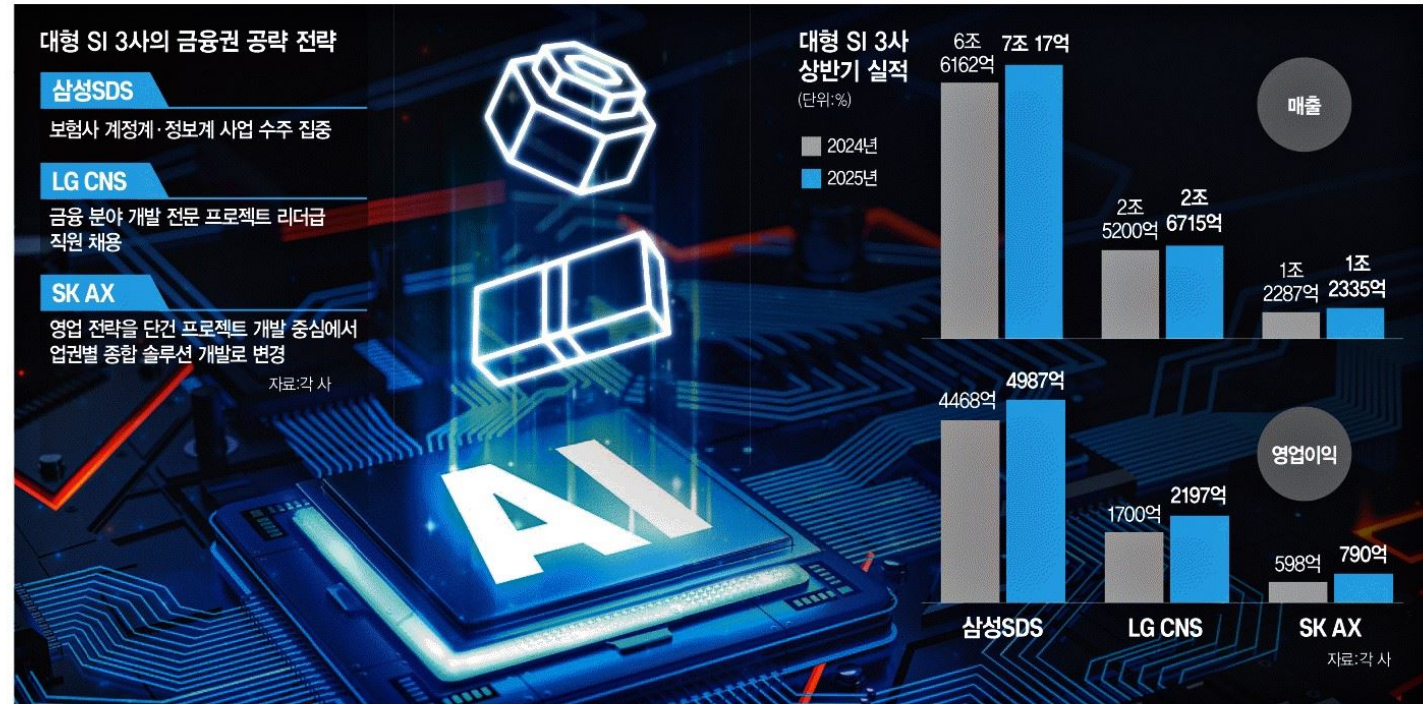
24일 업계에 따르면 SK AX는 최근 금융권 영업 전략을 프로젝트 중심에서 종합 솔루션 중심으로 바꿨다. 과거 개별 프로젝트 수주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금융 업무 전반에 필요한 AI 활용 방안을 먼저 금융사에 제안한다. 금융사가 단

SK AX, 종합 솔루션 중심 수주
LG CNS는 ‘금융통’ 채용 나서
삼성SDS도 보험사 사업에 집중

올해 상반기 사업의뢰 5배 증가
특수 타고 3사 영업의 투자릿수↑

순히 직원용 AI 검색 기능 개발을 의뢰했어도 상품 비교, 환율 시장 예측 등 금융 특화 솔루션을 함께 추천하는 식이다. SK AX는 은행·증권·저축은행 등 업권별 특성에 맞춘 종합 솔루션을 마련해 영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LG CNS는 금융 분야 개발 전문 인력 채용에 나섰다. 채용 직급은 프로젝트 리더로 금융사 프로젝트 지휘 경험이 있는 중간관리자급이다. 이번 채용은 향후 금융 관련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 판단하고 미리 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결정됐다. LG CNS는 채용 정원을 정하지 않고



능력 있는 지원자를 모두 받아들이 계획이다.

삼성SDS는 올 하반기 보험사 계정계·정보계 사업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계정계란 금융사가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정보계는 전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계정계·정보계 사업은 보험사의 전체 시스템을 갈아엎는 수준의 대규모 사업이다. 삼성 SDS는 대형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대형 SI 기업들이 금융권 시장 공략에 힘주는 이유는 최근 금융사의 AI 시스템

개발 수요가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업은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풍토가 있다. 게다가 경쟁사가 도입한 기술을 빠르게 따라 적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에는 금융권 내 AI 전환 열풍이 불면서 관련 시스템 도입 경쟁이 거세졌다. 금융사들이 앞다퉈 챗봇과 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AI 기술을 도입하자 덩달아 SI 업체들의 일감도 늘어난 것이다. 한 대형 SI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 상반기 금융사 사업 의뢰가 5배가량 늘었다”라고 귀띔했다.

금융권 특수는 곧바로 SI 업계 실적에

반영됐다. 대형 SI 3사(삼성SDS·LG CNS·SK AX)는 올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금융사 사업 수주가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SDS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498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LG CNS의 영업이익은 29.2%, SK AX의 영업이익은 32.1% 늘어났다. 금융권 사업의 수익성이 입증된 만큼, SI 업체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이 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쓰고 있다.

아울러 SI 업계는 금융사 프로젝트를 늘려 대외적인 호보 효과까지 기대하는 중이다. 금융사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실험적인 AI 기능 도입을 주저하지 않는다. SI 업체 입장에선 금융사의 의뢰를 통해 솔루션 개발 범위를 확장한 후 이를 두고 영업에 활용한다. 또한 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는 금융사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은 회사의 솔루션이 우수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SI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에 새로운 AI 솔루션을 적용해 성공 사례가 나오면 공공 분야 및 일반 기업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의뢰하곤 한다”며 “SI 업체에 금융사는 매출과 마케팅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주요 고객”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데이터센터 블루오션' 베트남으로 향하는 韓기업들

우리 기업의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규제와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해외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다. 동남아 지역에서도 이미 포화 수준에 이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신 베트남을 정조준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4일 업계와 베트남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베트남 IT 기업 CMC 테크놀로지와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100MW(메가와트) 규모의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삼성물산은 설계·시공·운영 등 EPC(설계·조달·시공)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이미

데이터센터 포화 상태에 가깝다"며 "신규 성장 동력인 데이터센터를 베트남에 구축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최근 국내 ICT 기업들이 눈

삼성물산 1.4조 규모 구축 추진
KT·LG CNS 등도 잇달아 공략
현지 수요 높고 규제 완화 매력

여겨보는 신흥 시장이다. KT는 올해 5월 베트남 국영 통신사 비엠텔과 13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환 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AI 전용 데이터센터(AIDC)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베트남 국가 AI 전략 수립에 참여해 베트남어 기반 '국가 범용 AI 언어모델' 개발도 함께 진



진출국가		협력 기업
국내 기업 동남아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현황	삼성물산	베트남 CMC 테크놀로지그룹
	KT	베트남 비엠텔
	LG CNS	인도네시아, 베트남 KMG, 베트남우정통신그룹

자료: 각 사

행할 예정이다. LG CNS 역시 최근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에서 베트남우정통신그룹(VNPT) 등과 손잡고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전초기지로 베트남을 택하는 배경에는 현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올해 7월에는 데이터센터·클라우드·통신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시장 진입 속도를 높였다. 그동안 글로벌 IT 기업들은 동남아 데이터센터 허브

로 싱가포르를 선호했지만 시장이 포화 단계에 이른 것도 주변 국가로 눈을 돌리게 한 이유다. 부동산 컨설팅사 쿠시먼앤웨이크필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데이터센터 개발 비용이 주변국 대비 낮고, AI, 5G, 블록체인,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크다. 실제로 베트남의 데이터센터 투자 수익률은 17.5~18.5%로, 싱가포르(21~23%)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쿠시먼앤웨이크필드 아태 데이터센터 그룹의 프리테시 스와미 분석 책임자는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 취득과 단독 데이터센터 소유·운영을 허용한 것은 디지털 인프라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향후 해외 투자자의 관심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지혜 기자

출장비·식대·복지포인트까지 사내 비용처리 AI가 간편하게

비즈플레이 B2E 페이 급성장 현대차·포스코 등 고객 확보

기업 경비관리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출장·식비·복지비용까지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비용을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B2E(기업과 근로자 간 거래·Business to Employee) 페이'로 폭풍 성장하고 있다. 비즈플레이는 금융 AI 에이전트 전문기업인 웹케시그룹의 자회사다. 24일 비즈플레이에 따르면 이 회사가 2022년 선보인 B2E 페이는 3년 만인 현재 고객사 1000개, 이용자 6만명을 확보했다.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를 비롯해 삼성 SDS, 포스코DX, 롯데쇼핑 등 주요 대기업부터 서초구청과 한국폴리텍대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들도 B2E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B2E 페이는 기존에 법인카드나 수기영수증 또는 식권으로 해결해야 했던 사내 비용 처리를 간편화한 모바일 서비스다. 기업이 업무 목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면 임직원이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적용한 기업들은 카드를 일일이 직원들에게 지급했을 때 생기는 관리 부담을 덜면서 비용 흐름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일이 영수증이나 식권을 챙길 필요가 없어졌다.

특히 주요 기능 중 2022년에 선보인 모바일 기반 식대관리 서비스는 월 거래액 70억원을 달성하며 연간 30%

B2E 페이 주요 서비스

구분	특징	주요 고객사
식대	80만개 제로페이 음식점에서 사용 가능	현대자동차
출장	AI가 규정에 맞는 항공·숙박 상품 추천	포스코DX
복지	200만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복지포인트 사용	롯데쇼핑

※ 자료=비즈플레이

씩 성장하는 국내 대표 모바일 식권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현대차 계열사와 삼성 SDS, 서초구청, 익산시청 등이 활용 중인 이 서비스는 구내 식당, 사내 카페 등 사내 식음시설은 물론이고 전국 80만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신청, 예약, 정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통합 관리하는 출장관리 서비스에는 AI가 탑재돼 회사 출장 규정에 맞는 숙박 상품을 알아서 추천하고 최저가 항공 노선도 찾아준다. 국내 모든 카드사와 연동해 비용 처리를 전자 증빙할 수 있어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수기로 검토할 필요도 없다.

현재 롯데쇼핑이 도입한 복지관리 서비스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받은 복지포인트를 사내 복지물뿐 아니라 전국 200만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게 지원한다. B2E 서비스 덕분에 기업들이 그동안 관련 업무에 투입했던 비용도 크게 줄었다. 비즈플레이에 따르면 출장관리 서비스 도입으로 전보다 회계 마감 시간은 70%, 경비처리 운영 비용은 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성 기자

물류현장 사고 막아라... AI 안전모니터링 도입 확산

인명사고·화재 인식해 자동 알림
상품 포장·분류과정 실시간 확인
에스원, 오배송·분실률 30% 줄여

컨베이어벨트 위를 씬 없이 지나가는 상자들. 수십만 건의 화물이 매일 입·출고 되는 물류센터는 작은 실수가 곧 대형사고와 직결되는 공간이다. 최근 물류업계가 인공지능(AI)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배경이다.

24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량은 2021년 36억3000만 개에서 2023년 51억5000만개로 2년 새 42% 급증했다. 이에 맞춰 물류센터 등록 면적도 같은 기간 48% 늘었지만, 종사자 수 증가는 8%에 그쳐 관리 인력이 확충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오배송·분실과 같은 운영 문제와 더불어 추락, 충돌, 화재 등 인명 사고까지 겹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업계는 기존 폐쇄회로(CC)TV 중심 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AI 기반 신기술 도입에 나서고 있다. 보안업체 에스원은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상품의 물류과정 전체 영상을 추적할 수 있는 '물류 추적 솔루션' △화재·추락·무단진입 등을 실시간 감지해 관리자에게 경보를 주는 'SVMS 안전모니터링 솔루션'



BGF로지스 직원과 에스원 근무자가 남사센터에서 물류추적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에스원 제공

을 내놨다.

물류 추적 솔루션은 컨베이어벨트와 작업대에서 촬영된 영상을 송장번호와 자동 연동해 저장한다. 문제 발생 시 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상품이 포장·분류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BGF로지스 검단센터는 이를 도입한 뒤 2년간 오배송·분실률이 30% 가량 줄어들 1000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넘는 손실을 줄였다.

SVMS 안전모니터링은 AI 알고리즘으로 화재, 작업자 쓰러짐, 위험구역 출입 등을 자동 인식해 관제센터와 관리자에게 즉시 알린다. 사고를 사전에 막거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

이다.

지난 19일 에스원과 BGF로지스는 본사에서 물류 추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올해 안으로 BGF로지스가 운영 중인 19개 상온센터와 일부 협력센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온센터 한 곳에서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센터들이 오배송·분실로 인한 영업 손실과 작업자 안전사고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첨단 솔루션 도입을 통해 물류업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더빙이 경쟁력이다...콘텐츠 현지화 바람에 'AI 성우' 시대 본격화

다양한 언어 구현...시간·비용 효율성
정부도 K콘텐츠 경쟁력 차원 지원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과 유튜브 등 글로벌 영상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콘텐츠 현지화의 핵심인 더빙 분야 시장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성우'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다양한 언어 구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월등한 효율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플랫폼은 속속 자체 AI 더빙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언어와 문장 구조가 비교적 복잡한 국가일수록 더빙 선호 경향이 강하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팅이 2022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브라질 등 남미 국가에서는 더빙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넷플릭스도 최근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빙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시 최대 30개국 언어로 더빙을 지원하고, 일반 작품도 평균적으로 10개 언어 더빙판을 구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K-콘텐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 AI 더빙 기술 적극 활용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

통신진흥협회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AST)와 AI 더빙 기술을 결합하는 80억원 규모의 'K-FAST 확산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AI 더빙 특화 지원 사업 주관사로는 이스트소프트가 선정됐다. 이스트소프트가 운영하는 AI 더빙 플랫폼 '페르소닷에이아이'의 기술을 통해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와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등 200시간 분량의 K-콘텐츠가 현지화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페르소닷에이아이는 텍스트 입력만으로 110개 언어 음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AI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음성에 다양한 감정을 담거나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더

'AI 성우' 도입·개발 기업들	
유튜브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자동 더빙 기능 도입
메타	일부 국가에서 숏폼 '릴스' 콘텐츠 자동 더빙해주는 '메타 AI 번역' 서비스 시작
아마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12개 영화·드라마 시리즈에 AI 더빙 시범 적용
이스트소프트	AI 자동 더빙 플랫폼 '페르소닷에이아이' 운영
허드슨에이아이	AI 자동 더빙 서비스 '팀버' 운영
비브리드	AI 자동 더빙 및 현지화 서비스 운영



〈자료: 각 업체〉

라도 매끄럽게 더빙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AI 더빙 스타트업 허드슨에이아이와 비브리드도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허드슨에이아이는 AI 더빙 서비스 '팀버'를 방송사와 언론사, 콘텐츠 창작자에게 제공한다. 오디오 분리와 화자 인식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017면 종합

기능을 통해 대사와 연기 타이밍을 정확히 분석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브리드는 발화자의 목소리를 구현하면서 언어만 외국어로 더빙해주는 'AI 더빙 솔루션'을 내세우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은 자체 AI 더빙 서비스 도입에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유튜브는 지난해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자동 번역 및 더빙 기능을 추가했다. 메타는 지난 19일 숏폼 '릴스' 콘텐츠를 자동 더빙하고 입 모양까지 동기화해주는 '메타 AI 번역' 기능을 일부 지역에서 시작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어스는 전 세계 AI 더빙 도구 시장이 2023년 7억 9430만 달러(약 1조1000억원)에서 2033년 29억1890만 달러(4조400억원)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R&D예산 파격 ... 35.3조 사상최대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 최대 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심화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다. 다만 다른 분야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나뉠듯 증가가 불가피해 경제와 기업 사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얼마나 투자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내년에 편성된 R&D 예산은 35조3000억원으로 증가율이 2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국가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 정부에서 '나눠 먹기'식 R&D를 근절해왔으며 작년엔 26조5000억원으로 삭

후 "과학기술이 미래 결정" ... 내년 예산 19.3% 늘려

AI 주도 성장 ... 2년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로드맵
SMR·바이오 등 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감했고 이에 과학기술계가 반발하자 올해 29조6000억원으로 다소 복원됐다.

배경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은 연구 생태계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 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위주 기술 주도 성장을 이재명 정부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내년에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소버린AI, 피지컬AI, 범용인공지능(AGI) 등 R&D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원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추격 경제에 맞게 설계된 우리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 경제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분야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할 뒤 올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2030년까지 첨단 그레

정부 R&D 예산안(단위=조원)



픽카드(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 45조6000억원을 편성했음에도 1%에 못 미치는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초 예상한 1.8%의 절반 수준이다. 내년에는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수출은 올해보다 오히려 0.5%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문지용·성승훈·최원석 기자

휴머노이드·자율주행 확 키운다 ... AI예산 2배로 증액

내년 과학기술 R&D 35.3조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복원된다. 단순히 줄어든 예산을 다시 때우는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에너지·전략기술 같은 신성장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재설계'라는 평가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다시 부처별 나눠 먹기로 흘러가진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R&D 예산안은 '기술선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양대 축으로 삼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에도 요약된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다시 미래를 바라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제도 혁신, 평가체계 개선, 여성 과학인과 해외 인재 유치 강화까지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R&D 예산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AI다. 전년 대비 106.1% 늘어난 2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범용인공지능(AGI), 저전력·경량 AI, 물리적 공간에서 구현 가능한 '피지컬 AI'까지 포함해 글로벌 독자 역량 확보를 노린다. 하 수석은 "세

전략기술 6.5조→8.5조 확대

양자컴 등 미래기술 개발 속도

방산 분야 예산도 25% 늘려

후 "AI 기본사회 실현 속도"

과학기술계 일제히 "대환영"

일각선 "부실연구 양산" 우려

계적 수준의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갖춘 특화 AI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엑스포'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 수석은 이와 관련해 "AI 엑스포에는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비롯해 해외 인재 유치 계획, 공공·산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AIX), 국민 실생활 AI 활용,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방안 등이 담겼다"며 "대통령 리더십 아래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엑스포를 수립·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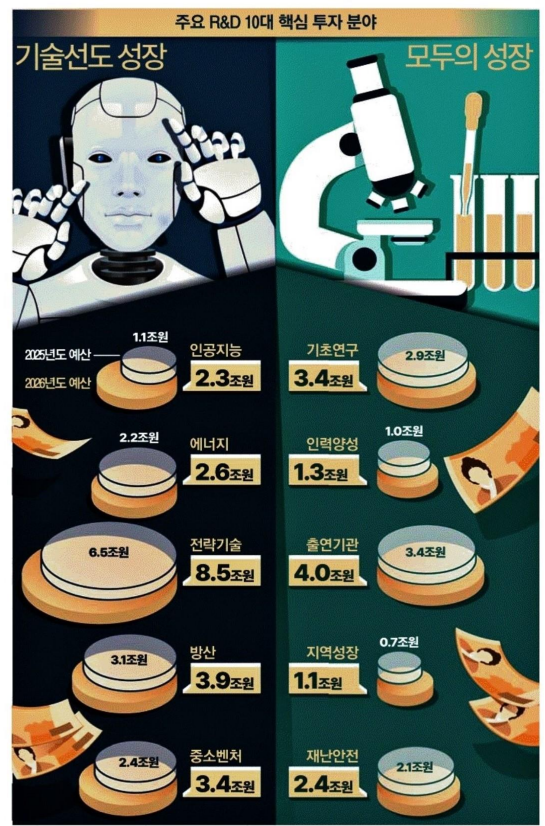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는 R&D 예산도 대폭 늘어나 2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 발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으로 차세대 에너지 대동맥을 구축한다.

여기에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같은 원천기술, 휴머노이드 로봇·자율주

행 같은 상용화 기술을 포함한 전략기술 분야에만 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방위산업 분야는 K9 자주포 성능 고도화 등 전략수출산업 육성과 신기술 접목 강화 등에 올해보다 25.3% 늘어난 3조9000억원을 반영했다. 중소벤처 분야는 올해보다 39.3%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계는 R&D 예산 확대를 일제히 환영했다. 구본경 IBS 유전체연구단장은 "AI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고 재생에너지와 소형원자로가 같이 가는 모습도 좋다"면서 "무엇보다 K컬처 열풍으로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는 지금, 인재유치 전략을 대폭 수정해 최고의 인재를 최상의 대우로 데려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초과학생태계 복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인권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는 "봉급 중인 기초과학 생태계, 현장을 떠난 연구인력들이 얼마나 돌아올지가 관건"이라며 "기초연구에 투여된 정책이 유지·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처 간 예산 중복집중과 성공률만 높은 부실 연구 양산 등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과실연 대표)는 "R&D 투자를 늘린다고 모두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닌 만큼 기술 사업화 시스템 전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과 출연연구소, 공공기술 기반의 딥테크 창업 인센티브 시스템도 손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식·성승훈·최원석 기자



① 예타 면제 ② 과제중심제도 폐지 ③ 인재 육성... 파격 R&D 예산 3대 포인트

정부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기술선도 성장을 통한 경제 도약과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AI)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연구과제중심제(PBS) 폐지, 핵심 인재 육성 등을 내세우며 전 정부의 R&D 기조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7개 시급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역별 AI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기술개발 속도·효율성 UP
출연 연구 중장기 연구 보장
AI핵심인재 병역특례 검토

지원하는 4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한다. 정부는 광주·대구·전북·경남을 거점으로 삼아 각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전환(AIX) 모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혁신제조 국산화, 해양연구선 온누리호 대체 건조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30년간 유지되는 PBS

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 외부 과제를 찾아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내년부터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보다 17.1% 늘어난 4조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최고 수준 연구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PBS 폐지를 통해 출연연이 본연의 국가 임무형 장기·대형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출

연연 재정 구조를 임무 중심성으로 바꿔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5~10년 뒤 미래를 설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인재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 인재의 유치·정착 등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인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확보하겠다"며 "해외 최상급 연구자 영입과 함께 국내 AI 핵심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수한 이공계 인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브레인 투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해 핵심 인재를 집중 육성·확보할 계획이다.

하 수석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병역특례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국회에 몇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병역특례는)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기·성승훈 기자

AI 키워 성장률 3% 회복...100조 국민성장펀드·연기금 총동원

李정부 성장 청사진은

이재명 정부 성장 전략의 운곽이 나왔다. 비전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다. 캐치프레이즈는 '진짜 성장'이다. 정책 방향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가능 성장' 네 가지다. 이 중 0%대로 떨어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대로 올리고,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릴 핵심 동력은 AI다. 문제는 5년간 기존 정부 재정 외에 추가로 연간 40조원 이상 5년간 210조원이나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따르면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기로 했다. 30개 선도 프로젝트에는 재정은 물론 세제, 금융, 인력, 규제, 입지 등 패키지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AI 대전환을 위한 15개 선도 프로젝트는 AI 로봇, AI 자동차, AI 선박, AI 복지·고용 등이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3대 강국에 진입하고, 자율주행 AI 모델에 연구개발(R&D)을 지원해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모든 행정 서비스에도 AI를 도입할 계획이다.

15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SiC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이다. SiC 전력반도체는 실

세계 3대 AI강국 진입 목표
AI 로봇·차 선도과제 선정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가동
태양광·전력 반도체 등 육성

5년간 210조원 추가재정 필요
중부세 등 추가증세 가능성도
세수 부족엔 국채발행 불가피

리콘 대비 전기 소모와 발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첨단 소재다. SMR도 이재명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초혁신경제 아이টে에 포함됐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중흥기를 맞고 있는 대형 원전은 제외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성장 프로젝트 외에도 민생·복지·노동 과제 등을 다 수행하려면 국정기획위원회 추산으로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42조원씩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이다. 포장은 기술 주도, AI 주도 성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인 셈이다.

정부는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재정과 함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50조원 이상의 민간자금과 50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조성된다. 국민연금과 연기금투자펀, 퇴직연금자금도 총동원한다.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정부 발표에는 없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5개년 계획에 3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잡았다. 연기금투자펀은 정부 내 중소형 기금 68개를 모아 운용하는 자금



으로, 77조원 규모다. 이미 지난달 첫 벤처 투자를 시작했는데,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AI 분야 벤처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430조원 규모인 퇴직연금 AI 등 벤처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절반 정도인 확정급여(DB)형은 안정적 퇴직금 지급이 우선

이라 투자 여지가 적다. 나머지 절반인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자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의 상품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법인세, 증권거래세 외에 종합부동산세 등 추가 증세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되

고 있다. 세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이 미흡하면 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미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158조원에서 228조원까지 대폭 늘었다. 국가채무비율 상승으로 대외 신인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지용·이재만 기자

행안부, 첨단기술로 재난·재해 대응 강화

지자체 CCTV 지능형으로 교체
AI 119로 신고 분류·처리 속도 ↑
핵심 데이터 개방 AI 성능 높여

정부가 홍수·가뭄·산불 등 각종 자연재난과 대형 사회재난 예방·대응에 인공지능(AI)·드론 등 스마트기술을 적극 접목한다.

인력 위주 대응에 한계를 절감, AI·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재해·재난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책을 지원·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를 담았다.

이를 주도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재난 대응체계 강화 △재난 모니터링 강화 △긴급구조 역량 강화 △재난피해 지원확대 △홍수·가뭄 예방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내용 상당수에 AI 등 신기술 접목이 강화된다.

'AI 기반 지능형 관제(CCTV) 고도화'가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이태원 참사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난 피해 최소화' 주요 내용

재난 대응체계 강화	실시간 상황 공유, 현장 작동성 강화, 주민 대피체계 고도화, 취약계층 대피 지원 등
재난 모니터링 강화	AI기반 지능형 관제(CCTV) 고도화, 인파·침수·산불 등 특정재난 예측모델 선도개발, 재난 드론 활성화, 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
긴급구조 역량강화	첨단 소방장비 및 AI기반 119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보강 등
홍수·가뭄 예방대책 마련	AI기반 홍수예보 확대, 수해 감시 전용 통신 위성 개발, 도시침수 예보지역 및 침수대응 인프라 확충 등

게티이미지뱅크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지능형 CCTV 보급이 급속도로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인력 관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행안부 측 판단이다.

행안부는 수백·수천대에 달하는 CCTV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접목한 관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AI 기반 119 시스템'도 AI를 통해 인력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소방청이 진행하는 이 사업

은 119 신고가 순간 급증할 시 AI가 이를 분류·처리해 대응 속도를 높이는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뒀다.

재난·재해 상황에 특화된 데이터와 알고리즘 개발도 타진한다.

현행 지능형 CCTV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재난·재해 등 특수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난·재해 등 특수상황 영상 데이터는 지자체에서 개별 보유하고 있어 개방·공유가 쉽지 않았다. 지자체가 보유한 이들 영상을 취합·개방해 민간 CCTV AI 성능을 높이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게 행안부 정책 방향이다.

알고리즘 역시 재난·재해 등 특수 상황 관련 알고리즘은 수요자가 공공 등에 국한돼 민간 기업 중 개발하는 곳이 드물다. 수요는 적지만 삶에 중요한 분야 알고리즘의 경우 행안부가 이를 직접 개발해 지자체·기업 등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드론 등 각종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한 연계해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산불 등 각종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AI 역시 중요 데이터 적극 개방·공유 등을 통해 AI 성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사람의 요청을 이해하고, 사람이 원하는 일을 대신 수행하는 '인공지능(AI) 비서' 시장 경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미국 오픈AI의 챗GPT 등 생성형 AI가 고성능 비서 역할까지 장악하면서 기존에 AI 비서를 쓰던 사용자 눈높이가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빅테크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퓨처데이터스퀘어는 챗GPT가 처음 선보인(2022년 11월) 직후인 2023년 1086억 달러(약 151조원)였던 글로벌 AI 비서 시장 규모가 2030년 2423억 달러(약 336조원)로 연평균 17.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AI 비서 전쟁 2라운드의 승자가 되는 데 관건은 차별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시리(Siri)야, 오늘 날씨 어때?" 잠에 서 깬 아침에 바깥 상황이 궁금한데 커튼을 열러 가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힘은 없는 아이폰 사용자라면 종종 해봤을 음성명령이다. 오늘의 날씨 정보 외에도 음악 재생이나 메시지 입력, 계산 등을 시리에게 요청하고 기다리면 잠시 후 시리는 사용자 대신 여러 일을 해서 결과를 알려준다. 애플은 이런 AI 비서 시장을 2011년 처음 공개한 이후 아이폰 신작마다 적용했다. 다만 눈에 띄는 성능 개선이 많지 않아 사용자 사이에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혹평도 많았다. 애플은 오픈AI와 손잡고 지난해 12월 챗GPT 기능을 탑재한 새 버전의 시리를 출시했지만, 역시 차별점 부족으로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했다.

중국 지푸AI, 무료 서비스로 차별화
그러자 애플은 대대적인 AI 비서 사업 강화에 나섰다. 이달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시리의 AI 성능을 대

폭 개선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AKI 팀'을 신설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팀은 사용자의 단순 명령뿐 아니라 각종 지식 관련 복합적 질문에 시리가 답변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중이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AI 개발에 소홀한 동안 챗GPT 같은 챗봇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에게 사랑받고 있다"며 애플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애플은 내년 봄 출시를 목표로 시리에 새 음성제어 기능을 탑재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미국의 다른 빅테크도 AI 비서 차별화에 사활을 걸었다. 메타(구 페이스북)는 사람 감정을 인식해 음성으로 재현하는 AI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웨이브폼스AI를 최근 인수했다. 지난해 플레이 AI 인수에 이은 두 번째 AI 음성기술 스타트업 인수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람과 음성으로 상시 대화하는 친구 같은 AI'를 구현해 다른 AI 비서와 차별점을 가

챗GPT 여파 AI 비서 눈높이 높아져 애플·메타, 음성제어·대화 고도화 아마존, 스마트홈 통합 기능 강점

네이버, 연내 쇼핑용 AI 비서 첫 선
카카오, 오픈AI와 '카카오톡' 출시 앞둔
"도움 AI, 해외 서비스와 차별이 관련"

진다는 계획에 따른 투자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실적 발표 때 "우리는 온종일 대화하는 AI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음성인식 AI 비서와의 소통은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끝나는 한계가 뚜렷했다. 반면 챗GPT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람과 온종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음성대화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게 메타의 구상이다.

아마존은 생성형 AI 기반 AI 비서 '알렉사플러스(+)'의 가전 등 스마트홈 통합 기능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용자가 알렉사+한테 "너무 춥다"고 말하면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높여주는 등 알렉사+의 도움으로 편리하게 맞춤형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알렉사+는 쇼핑 기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시범 도입한 기능은 제품 설명과 고객 리뷰 등을 AI가 분석해 핵심 내용을 요약·발제한 뒤 이를 음성으로 제공한다. 오픈AI도 챗 /

진다는 계획에 따른 투자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실적 발표 때 "우리는 온종일 대화하는 AI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음성인식 AI 비서와의 소통은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끝나는 한계가 뚜렷했다. 반면 챗GPT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람과 온종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음성대화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게 메타의 구상이다.

아마존은 생성형 AI 기반 AI 비서 '알렉사플러스(+)'의 가전 등 스마트홈 통합 기능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용자가 알렉사+한테 "너무 춥다"고 말하면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높여주는 등 알렉사+의 도움으로 편리하게 맞춤형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알렉사+는 쇼핑 기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시범 도입한 기능은 제품 설명과 고객 리뷰 등을 AI가 분석해 핵심 내용을 요약·발제한 뒤 이를 음성으로 제공한다. 오픈AI도 챗 /

진다는 계획에 따른 투자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실적 발표 때 "우리는 온종일 대화하는 AI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음성인식 AI 비서와의 소통은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끝나는 한계가 뚜렷했다. 반면 챗GPT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람과 온종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음성대화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게 메타의 구상이다.

아마존은 생성형 AI 기반 AI 비서 '알렉사플러스(+)'의 가전 등 스마트홈 통합 기능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용자가 알렉사+한테 "너무 춥다"고 말하면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높여주는 등 알렉사+의 도움으로 편리하게 맞춤형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알렉사+는 쇼핑 기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시범 도입한 기능은 제품 설명과 고객 리뷰 등을 AI가 분석해 핵심 내용을 요약·발제한 뒤 이를 음성으로 제공한다. 오픈AI도 챗 /

게 처리할 수 있다. 오픈AI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지푸 AI가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며 이를 경계했다.

한국 IT 업계도 2라운드로 격화한 AI 비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는 연내에 사용자가 쇼핑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쇼핑용 AI 비서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8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소비자가 확신을 갖고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의 AI 비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을 뒤쫓고 있는 네이버로서는 쇼핑 부문과 AI 부문을 동시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오픈AI와의 협업으로 주목받는 AI 비서 '카카오톡'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AI가 사용자의 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맥락을 파악해 대화를 요약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 5월 카카오톡의 시범 서비스 버전을 출시했지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아닌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출시돼 접근성이 떨어지고, 검색 정확도가 낮은 게 단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AI 비서 '에이닷' 4.0 버전을 출시해 사용자 반응을 점점하고 있다. 구버전이 사용자의 요청을 단순 수행하는 데 그쳤다면, 새 버전에선 사용자의 과거 대화를 기억하고 숨은 의도를 파악해 작업을 순차적으로 계획·실행한다.

국내 AI 비서의 성능 개선 못지않은 관건은 해외에서 건너온 더 강력한 AI 비서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차별화할 수 있는느냐. 이성업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토종 AI 비서가 해외의 비슷한 서비스보다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 차별화했는지(사용자가) 체감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며 "기업이 국내 수요를 더 구체적으로 깊이 파악해 세분화한 서비스를 선보여야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병호 고려대 AI 연구소 교수는 "기업이 지금껏 쌓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 소비자가 가진 고민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AI 비서로 차별화해야 한다"며 "서비스 기획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I 경쟁 밀린 메타, 생성 이미지 기업 ‘미드저니’ 손 잡았다



메타의 공격적 투자

독자 개발로는 경쟁력 한계 판단
메타 제품에 미드저니 기술 적용
“업계 최고 파트너와 협력 필요”
애플, 시리 개편에 구글 협업 고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메타가 이미지·영상 생성 AI 스타트업 미드저니와 손을 잡았다. 독자 개발만으로는 AI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알렉산드르 왕 메타 최고인공지능 책임자(CAIO)는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미드저니와의 파트너십을 알리며 “미드저니의 심미적 기술을 향후 우리 모델과 제품에 적용해 수십억 명 이용자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드저니는 2021년 설립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이미지·영상 AI 스타트업이다.

그동안 AI 기술을 독자 개발해온 메타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처음으로 외부 협업의 물꼬를 텄다. 왕 CAIO는 “이번 기술 협업은 전문성과 역량에 있어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업계 최고 기업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메타가 사람들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인재, 야심찬 컴퓨팅 로드맵, 업계 최고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초지능 연구실(Superintelligence Labs)’로 알려진 사내 AI부서를 AI 연구·초지능·제품·인프라 등 4개 그룹으로 분할하며 AI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타사 AI 모델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도 모색하기로 했다.



알렉산드르 왕 메타 CAIO가 엑스(X)에 올린 글. 그는 “미드저니의 기술을 미래 모델과 제품에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엑스 캡처]



저커버그

그동안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 AI 개발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온 메타는 최근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메타는 지난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구축과 AI 기술 인력 채용·보상에 사용하기 위해 올해 최대 720억 달러(약 100조원)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쟁사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9자리 수(수억달러)’ 연봉 패키지를 제시하는 등 업계를 흔들어놓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데이터 라벨링 스타트업 스케일AI 지분 49%를 143억 달러(약 19조원)에 사들이며 스케일AI CEO였던 알렉산드르 왕을 자사 CAIO로 앉히고, 오픈AI에서 챗GPT를 공동 개발한 성지아 자오를 영입해 최고 AI 과학자로 임명하는 바 있다.

AI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빅테크가 외부 파트너와 손을 잡는 건 실리콘밸리에서 떠오르는 생존 전략이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구글과 맞춤형 AI 모델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애플이 내년에 새 버전으로 출시할 음성 비서 ‘시리(Siri)’에 구글 AI 모델인 제미니를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올해 초에도 엔스로픽·오픈AI 등과 시리 개편에 대한 잠재적 제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인 엔스로픽에 투자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아마존이 엔스로픽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엔스로픽에 80억 달러(약 11조원)를 투자한 아마존이 수십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집행할 경우 아마존은 엔스로픽의 최대 주주로 남게 된다. FT는 이 투자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 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에 대항하는 방어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머스크 “xAI 오픈소스 공개…구글 뛰어넘을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자신이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일부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밝히며 이 회사를 향후 최고의 AI 기업으로 이끌 것이라는 자신감을 거듭 드러냈다.

머스크는 2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xAI는 곧 구글을 제외한 어떤 기업도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는 구글을 현저히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텐데, 그들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갖고 있고 하드웨어 구축에서도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머스크는 엑스를 통해 xAI가 ‘그록 2.5’ 모델 소스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그는 “지난해 우리 최고



모델이었던 xAI 그록 2.5 모델이 이제 오픈소스”라며 “그록 3은 약 6개월 뒤에 오픈소스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과거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함께 오픈AI 설립에 참여했다가 결별한 뒤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자 이를 능가하는 AI 모델을 내놓겠다며 2023년 7월 xAI를 설립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AI 뒤처진 애플, 시리에 구글 활용 논의

〈제미나이〉

경쟁사 손잡고 업그레이드 추진
맞춤형 AI 모델 개발 승부수 띄워

애플이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시리(Siri)' 업그레이드에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기술 개발에 뒤처진 애플이 경쟁사와 손을 잡으며 AI 기술 따라잡기에 나섰다.

2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구글에 내년 출시되는 새로운 시리의 기반이 될 맞춤형 AI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이에 구글은 애플 서버에서 구동될 수 있는 모델 훈련을 시작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연구는 애플이 뒤늦게 진출한 생성형 AI 분야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애플은 올 초 앤스로픽 및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모색하며 클로드나 챗GPT가 시리의 새로운 두뇌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했다. 애플 경영진은 오랜 시간 앤스로픽을 유력한 파트너십 후보로 여겨왔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후보군을 확대했다.

다만 애플이 시리의 내부 모델을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파트너십을 통해 외부 모델과 통합할지 등을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당초 자체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올 초 시리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었다. 업그레이드된 시리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명령을 수행하고, 사용자가 음성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업데이트가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AI 기술 개발이 뒤처지면서 애플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초 회의에서 "애플이 AI 분야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디 큐 애플 서비스부문 수석 부사장은 올 5월 구글 검색엔진 반독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I라는 새로운 기술 변화는 신규 진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NASA·구글, 우주비행사용 의료 상담 AI 'CMO-DA' 개발

#“612건의 질병이 발견됐습니다.” 가까운 미래, 지구에서 태양계 밖 먼 행성으로 이동 중인 대형 우주선 내부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목소리의 정체는 우주선을 지휘하는 거스 만쿠스 선장(로런스 피시번 분)의 몸 상태를 진단한 인공지능(AI)이다. 임무 도중 강한 통증을 느끼고 졸도까지 한 선장이 우주선 내 AI와 연동된 특수 침대에 누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것이다.

AI는 “세포 고사과 장기 부전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한다. 우주선이 소행성과 충돌하며 주요 시스템이 고장 났고, 이 때문에 거스 선장의 동면 장치 내 신체 유지 장비가 망가져 사망이 난 것이다. 미국 공상과학(SF) 영화 <패신저스> 속 얘기다.

AI가 알아서 사람을 진단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SF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법과 제도적 제한 같은 요소는 접어두

화성~지구 2억2500만km 떨어져 광속 전파로도 ‘시간 지연’ 발생 진단 80% 정확… 더 높이는 시험 지구 내 무의촌서도 활용 가능성

고라도 영화 속에서처럼 AI가 환자 몸 상태를 정밀 검사해 다양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질 조짐이 나타났다. <패신저스> 속 AI가 예상보다 일찍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화성에서는 진단에 장시간 소요

미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구글이 지구 밖 천체에 진출한 인간에게 의료 상담을 제공할

현재 시험 중인 이 시스템 이름은 ‘디지털 기반 의료 승무원’(CMO-DA)이다.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화성처럼 지구에서 먼 천체에 머무는 우주비행사가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끼면 CMO-DA가 들어간 우주기지 내 전자 장비 앞에 앉아 증세를 말하거나 글자로 입력하면 된다.

CMO-DA에는 자연어 처리 능력이 있다. 챗GPT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의 질문을 접수한 뒤 답을 내놓는다. 이상 있는 부위의 사진을 찍어 보여줘도 된다.

우주비행사를 위한 의료 상담용 AI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 그냥 지구에 있는 의사와 통신 장치를 켜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거리’다.

인류의 가장 유력한 정착지 후보인 화성은 지구와 평균 2억2500만km 떨어져 있다. 화성 기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주비행사가 자신이 겪는 통증을 문서나 영상에 담아 발신한 전파는 12분30초 뒤

지구 관제소에 도착한다. 빛은 초속 30만km나 될 만큼 빠르지만, 화성이 워낙 멀어 생기는 시간 지연이다.

통증 호소를 확인한 지구 관제소의 의사가 치료법을 만들어 전파에 실어 보내면 역시 12분30초 뒤에야 화성 기지에 도착한다. 지구 관제소의 의사가 진단에 들이는 시간을 빼고도 꼬박 25분 이상을 기다려야 자신이 왜 아픈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진단 정확도 70~80% 수준

이런 시간 지연은 중대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화성 기지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는데, 25분을 기다리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하다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는 지구에서 약 400km 떨어진 국제 우주정거장(ISS)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문제다. 우주비행사가 상주하는 ISS는 지구가 뻗어 보일 정도로 가까운 우주에

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전파 통신이 가능하다. 우주비행사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지구 관제소에 물어보면 된다. 지구와 38만km 떨어진 달에서도 약 3초면 질문과 답이 오갈 수 있다.

NASA와 구글은 CMO-DA에 발목 부상과 옆구리·귀 통증에 대한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인간 의료가 평가한 CMO-DA 진단 정확도는 70~80% 수준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시험가동을 통해 기술 수준을 더 높여야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지구 밖 우주비행사에게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든든한 ‘의무병’이 될 만하다.

양기관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며 “CMO-DA의 능력은 지구 외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오지에서 의료 상담 지원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3일 업무를 단 5분만에...잠들지 않는 'AI 애널리스트'

AI와 협업에 빠진 월가
블랙록 리스크 관리 플랫폼 개발
투자 자동화보다 보완 도구 활용
AI로 원가 줄이고 수익률도 높여



“다른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연구 보고서, 회사 자료, 이메일을 스캔해 포트폴리오에 대한 통찰력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2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립 골드스타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올해 6월 열린 인베스터데이 행사에서 ‘아시모프(Asimov)’라는 AI 리서치 플랫폼을 공개했다. ‘가상 애널리스트’인 아시모프는 인간의 도움 없이 자율적으로 투자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아직 주식 부문에만 적용 중이나 향후 전사 차원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블랙록은 ‘금융시장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플랫폼 ‘알라딘(aladdin)’에 AI를 접목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알라딘은 대형 금융회사,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투자·위험관리 플랫폼으로 관리 자산만 21조 달러를 넘는다. 블랙록은 알라딘이 단순 리스크 관리를 넘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다.

미국 증권가에서는 블랙록을 선두로 일상적인 금융 업무에 AI가 활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아시모프 등 새로운 AI 플랫폼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정확한 정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협업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지난달 자산운용사들이 AI와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원가를 최대 43%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투자 프로세스 간소화, 규정 준수 자동화 등 각 분야에서 AI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I가 기업 실적 발표나 재무 보고서 등을 종합해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면 애널리스트가 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등 활용 방안도 다양하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바우프스트룹 설립자 세스 클라먼 최고경영자(CEO) 역시 AI를 유능한 인턴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클라먼 CEO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AI에 한 기업의 10년 치 연례 보고서를 살펴보고 의사소통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하라고 했더니 3일 걸릴 업무를 5분 만에 답변했다”고 했다.

AI를 활용한 포트폴리오의 투자 성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이 6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0~2020년 펀드매니저들이 매 분기 28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는데 AI 애널리스트를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자 실제 수익률보다 분기당 1710만 달러를 더 벌었다. AI가 30년 동안 대부분 펀드매니저보다 평균 600% 이상 추가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 컨설팅 업체 PwC 또한 최근 ‘AI 시대의 일자리 지형 변화 보고서’를 통해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AI가 ‘완전 자동화’보다는 ‘보완’ 형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PwC 관계자는 “AI와 사람이 협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 산업 내 AI 도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딥시크, 새 버전 공개... “차세대 국산 칩 맞춰 설계”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업그레이드된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중국산 칩’을 언급했다. 딥시크의 기술이 중국산 칩과 결합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경우 AI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딥시크는 전날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딥시크 V3.1 배포, 에이전트 시대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발표하며 업그레이드된 V3.1 공개 소식을 전했다. 딥시크는 추론 기능과 비(非)추론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V3.1 모델이 ‘UE8MO FP8’이라는 데이터 형식

추론·비추론 통합 V3.1 배포
“中 독자기술 칩 큰 진전 의미”

‘AI 반도체 안보 우려 목적지’
美·EU 합의문에 中견제 명시

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75%까지 줄여 훈련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저사양 칩으로도 AI 모델 훈련이나 구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딥시크 측은 해당 게시물에 “UE8MO FP8은 곧 배포될 차세대 국산 칩에 맞춰 설계됐다”고 댓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SCMP는 “이 한 줄짜리 댓글이 중국이 또 다른 돌파구를 이뤄냈을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며 “중국어 독자 기술로 AI 칩 분야에서 중대 진전을 이뤘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화웨이 등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딥시크를 포함한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에 맞춘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 앞서 6월 화웨이와 AI 인프라 스타트업 실리콘플로는 “화웨이의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 아키텍처와 어센드 칩의 결합이 엔비디아의 H800 칩을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딥시크의 R1 모델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딥시크의 추론 특화 모델 R1의 후속인 R2의 출시를 주목하고 있다. 당초 5월로 예정됐던 R2 출시 시기가 늦춰지면서

의혹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R2 훈련에 화웨이 칩을 사용했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중국에 대한 반도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SCMP는 이날 발표된 미국과 유럽 연합(EU)의 무역 합의문을 분석한 결과 EU가 미국산 AI반도체의 중국 유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U가 400억 달러(약 56조 원) 상당의 미국산 AI 칩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우려되는 목적지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EU가 미국 안보 기준을 채택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려되는 목적지’는 중국을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이라는 게 SCMP의 해석이다. 박윤선 기자

HD현대, 2000억 유치 산업용 AI로봇 키운다

HD현대의 로봇 계열사 HD현대로보틱스가 외부 자금을 수혈해 '산업용 인공지능(AI) 로봇'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HD현대그룹은 산업용 AI로봇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A12면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HD현대로보틱스는 다음달 상환전환 우선주(RCPS)를 발행해 2000억원을 조달한다. 토종 사모펀드(PEF) KY PE와 산업은행이 자금을 낸다. 투자금은 AI 기반 산업용 로봇 고도화와 해외 진출에 투입한다. 기존 산업용 로봇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스스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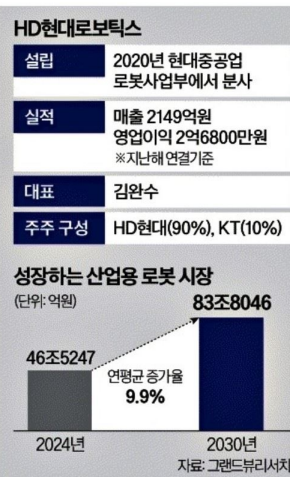
최다운/김우섭 기자

HD현대로보틱스, 2천억 유치

세계 산업용 로봇시장 강자지만 휴머노이드 출현후 위기감 고조
단순 반복 대신 스스로 판단하는 AI 기반 산업용 로봇 만들 계획
산은·PEF 지원 ... IPO도 나설듯

지난 40년 동안 현대자동차의 공장 자동화를 도맡아온 HD현대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시장의 글로벌 강자다. 용접과 도장, 조립 등을 하는 6축 다관절 로봇(6개 관절을 갖춘 로봇)과 패널 운반 로봇 분야에선 세계 1~2위를 다툰다. 매년 성장을 거듭해온 HD현대로보틱스에도 한 가지 고민이 있다. 로봇 시장 대신 휴머노이드 등에서 중국에 밀려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지 못한 것.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가 산업용 로봇 영역까지 침범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로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HD현대로보틱스가 산업은행과 KY PE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 반복



복 작업 중심인 산업용 로봇에 AI를 접목해 스스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2000억원 유치' HD현대로보틱스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는 생김새, 쓰임새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휴머노이드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닮은 외형, 팔, 다리 등을 갖춘 로봇이다. 다리로 걷고



지난 3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HD현대로보틱스 부스에서 회사가 개발한 양팔 로봇이 물건을 옮기고 있다. 임형택 기자

팔로 물건을 집는 등 사람처럼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움직이기 위해 피지컬 AI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적용된다.

산업용 로봇은 주로 로봇팔 형태다. 여러 개 관절을 갖춘 로봇팔이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물건 운반, 조립, 도장,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한다. HD현대로보틱스는 기존 산업용 로봇에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두뇌와 눈 등을 입힐 예정이다.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피지컬 AI는 HD현대그룹의 AI 전담조직 AIC(AI 센터)에서 제공한다. AIC는 로봇팔이 최단·최저 경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딥러닝 기반 행동 제어 프로그램 등

을 개발할 전망이다. 로봇의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와 센서 기술도 개발한다. 카메라와 3차원(3D) 센서로 사물을 인식하거나 제품을 정밀 조립하는 등의 기술에 투자가 단행된다.

산업용 로봇에 AI를 접목하는 건 글로벌 시장 트렌드다. 다국적 기업 ABB와 일본 파나 등은 이미 각종 AI 기술을 접목한 산업용 로봇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339억달러이던 산업용 로봇 시장은 AI 기술 접목에 힘입어 2030년 606억달러로 78.7%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도 '배팅' ... IPO 고려하나 HD현대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분야

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미국 로봇 AI 기업 페르소나AI, 바질컴퍼니와 손잡고 개발 중인 용접용 휴머노이드가 대표적이다. 출시 시기는 2027년께다. 산업용 로봇에 치중된 HD현대로보틱스의 제품군이 2~3년 안에 휴머노이드와 협동로봇 등으로 다양해진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HD현대로보틱스가 조만간 기업공개(IPO)에 나설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회사 측은 산업은행과 KY PE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안에 상장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매출 2095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올린 HD현대로보틱스는 이번 투자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약 1조8000억원으로 인정받았다. 국내 로봇업계 시가총액 1위인 레인보우로보틱스(5조1026억원)와 두산로보틱스(3조9216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두 회사는 지난해 각각 193억원과 4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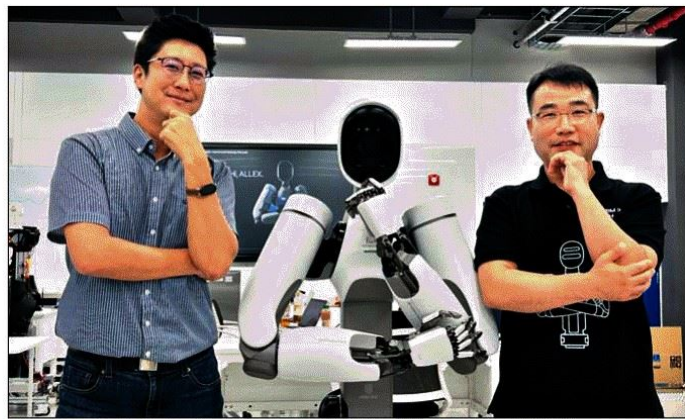
산업은행이 KY PE와 손잡고 투자에 나선 것도 관심을 모은다. 국가 차원에서 로봇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국책은행이 팔을 걷어붙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다운/김우섭/차준호 기자

사람 손처럼 정밀 ... K휴머노이드의 진화

위로보틱스가 공개한 ‘알렉스’ 손목·손가락 움직임 자유로워 미세한 힘도 감지해 반응 조절 약속하니 실제 사람과 하는 듯 나사못 조이고 핀셋 정밀조작 “AI 접목, 만능 로봇으로 개발”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뛰어 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국내 스타트업이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졌다. 최근 범용 휴머노이드 ‘알렉스’(ALLEX)’를 공개한 위로보틱스가 주인공이다. 지난 22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 다담미래학습관에서 만난 김용재 위로보틱스 대표는 “알렉스처럼 사람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말처럼 알렉스는 단순한 기계 동작을 넘어 사람과 교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팔뚝을 내밀자 아프지 않게 손목을 감싸주는가 하면 하이파이브와 악수도 매끄럽게 해냈다. 적당한 힘과 유연한 손목 움직임이 실제 사람 같았다.

알렉스의 손은 15개의 관절(15자유도)을 갖고 있어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했다. 물병 뚜껑을 따거나 얇은 나사못을 조이는 것은 물론, 핀셋으로 쌀알 크기의 미세한 부품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손목뿐 아니라 10개의



김용재 위로보틱스 대표(왼쪽)와 이광규 로봇 이노베이션 허브(RIIH) 센터장이 지난 22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휴머노이드 ‘알렉스’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안선제 기자

손가락 각각이 유연하고 자유롭게 움직였다. 깍지를 낀 채로 양손을 앞으로 쭉 뻗으며 스트레칭을 하는 등 기존 휴머노이드들이 하지 못했던 고난도 동작을 선보였다. 김 대표는 “알렉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처럼 무게감(역감)을 느낀다는 것”이라며 “100g 단위의 미세한 무게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로봇들이 센서를 이용해 힘의 크기와 방향 등을 측정했던 것과 달리 알렉스는 독자 기술 개발을 통해 액추에이터(구동기) 성능을 고도화해 이 같은 기능을 구현했다는 게 김 대표 설명이다. 액추에이터는 전기 에너지를 물리적인 힘과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다만 알렉스는 현재 상반신 하드웨

어 개발만을 완료한 단계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수동 조정이 필요하다. 위로보틱스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리얼월드’ 등과 협업해 알렉스가 AI를 통해 스스로 정보를 인지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동성 강화를 위해 바퀴를 장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내년 초까지 하반신 다리 플랫폼을 공개한다. 김 대표는 알렉스를 산업용 로봇이 아닌, 가정·식당 등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서비스 로봇으로 구현한다는 목표다.

김 대표는 로봇 분야에서 수십 년간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이다. 삼성전자 등에서 연구를 이어오던 그는 여러 글

휴머노이드 알렉스 개요

- 어깨 아래 무게 약 5kg(손 700g)
- 센서 없이 액추에이터로 힘 감지
- 15개 관절을 가진 유연한 손
- 핀셋·병 따기 등 정교한 손동작
- 악수·하이파이브 등 사람과 교감
- 인공지능 접목·바퀴 장착 예정

로벌 기업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국내에서 독자 기술을 개발하는데 의미를 두고 한국에 남아 창업을 택했다. 위로보틱스는 2021년 설립 후 웨어러블 보조 로봇을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해 오다 휴머노이드 개발에 도전했다.

김 대표는 “오랫동안 팔·손·다리를 따로 연구해 왔지만 지금 로봇의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를 합쳐 플랫폼화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다”며 “알렉스를 공개한 것은 다양한 기업과 연대해 발전해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알렉스 공개 이후 연구용 도입과 양산 등의 협업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위로보틱스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K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김 대표는 “한국은 현재 중국과 미국에 비해 기술이 많이 뒤쳐져 있지만 유망 분야를 잘 발굴해 집중 지원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안선제 기자

산업용 로봇시장 韓 건고 中 난다

中 글로벌 점유율 '54%'로 성장
설치량 감소세 속 나홀로 증가
韓, AI 도입 등 차별화전략 필요

지난해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이
역성장한 가운데, 중국만 성장세를 이
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
업들이 로봇 시장에서도 드론처럼 중국
에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토 타카유키
국제로봇연맹(IFR) 회장은 최근 열린
'2025 세계로봇퍼포먼스(WRC)'에서
지난해 신규 산업용 로봇 설치량이 전
년 대비 3% 감소한 52만3000대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는 전년 대비
2%, 유럽은 6%, 미주는 9% 하락하는
등 세계 3대 시장이 모두 역성장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산업용 로봇 설치량
이 전년 대비 5% 더 늘어나면서 유일하
게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산업용 로봇 글로
벌 점유율은 2023년 51%에서 지난해
54%로 늘었다. 중국은 올해도 약 29만
대의 신규 산업용 로봇을 설치할 것으
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최대
규모다.

중국이 글로벌 1위 산업용 로봇 시장
으로 성장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중국에
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지 기업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
다. HD현대그룹의 HD현대로보틱스
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상하이
판매법인의 순손실은 전년보다 더 늘
었고, 강소 생산법인 역시 순손실을
기록했다.

두산로보틱스 역시 중국 시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18년 중국 최대 산업자동화 솔루션
기업인 보존그룹과 손잡고 협동로봇 시
장에 진출했지만, 올해 2분기 영업손실
157억원을 기록하는 등 2020년 이후 누
적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만큼, 첨단 인공
지능(AI) 도입과 같은 차별화 전략 없
이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제품이나 모빌리티 등 중국이 입지
를 넓히고 있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로봇 분야에서도 가격 공세에서 국
내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의 기
술력은 이제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비스
한 수준까지 성장한 반면 가격 경쟁력이
말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고가 제품 시
장 역시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의 도전이
거센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기술력
으로 중국 기업들과의 격차를 벌려야 하
는데 연구개발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ishsy@dt.co.kr

매일경제

“공장 투입된 中로봇, 나사 조이고 확인도 척척”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A08면 국제

中로봇 소부장 텐치 가보니
차량 점검 휴머노이드 로봇
유비테크·겔봇과 공동 개발
훈련 중인 로봇만 수십대
지커 등 전기차 공장에 투입

“차량 내 케이블이 완벽하게 설치
돼 있는지, 휠에 부착된 나사가 제대
로 조여졌는지 등을 점검하는 모습입
니다.”

지난 19일 중국장쑤성 우시 소재의
전기차 및 로봇 소재·부품·장비(소부
장) 기업 ‘텐치’의 왕짜오 선전부장은
생산라인을 그대로 옮겨 만든 전시관
에서 차량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양손에 센서가 달린 붓을 들고 휠
앞으로 다가간 로봇은 두 팔을 상하좌
우로 움직이며 휠이 제대로 설치됐는
지 10여 초간 검사했다. 이 로봇은 텐
치가 중국 로봇 기업 겔봇과 함께 개발



중국 전기차 및 로봇 소재·부품·장비 기업 ‘텐치’가 중국 대표 로봇 기업 겔봇과 함께 개발한
고객 맞춤형 휴머노이드 로봇. 이 로봇은 현재 중국 전기차 브랜드 지커 등 여러 기업의 생산
라인에 투입돼 작업을 처리하고 있다.

한 것이다.

1984년 출범한 텐치는 자동차 장비
기업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전기차를
넘어 로봇 소부장 업체로 자리 잡았
다. 고객 니즈에 맞춰 생산라인에 휴
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
이다. 완성 로봇을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로봇 부품을 제작하면서 중

국을 대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들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유
비테크·겔봇이 하드웨어를 만들면 텐
치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식이다.
특히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로봇에 입
력하고 이를 토대로 훈련하는데 강점
을 갖고 있다. 현재 훈련을 진행 중인
로봇만 수십 대에 이른다.

로봇 훈련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지리자동차의 프
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 공장에 차
체 훈련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했
다.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커 외에 여러 회사에 이미 수십 대
로봇을 제공했다고 한다.

중국 제조업 현장에서는 휴머노이
드 로봇 상용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
다. 최근 중국 자동차 부품사인 푸린
정공은 중국 로봇 기업 애지봇의 휴머
노이드 로봇 약 100대를 공장에 설치
했다. 실제 생산라인에 투입한 사례로
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구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
지만 수천만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전
해졌다.

또 애지봇은 지난달 국영 통신사 차
이나모바일로부터 1억2400만위안
(약 240억원)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
봇 물량을 수주했다. 애지봇은 LG전
자와 미래에셋이 최근 투자한 업체
로, 향후 3년간 휴머노이드 로봇 10만
대를 공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시 송광섭 특파원

공공사업 수주 기대감... 보안업계 하반기 실적도 훈풍

업계 상반기 실적 선방

안랩 영업이익 25% 늘어 45억원
클라우드·네트워크 등 고른 성장
하반기 공공·기업 투자 '본격화'
해킹사태 여파로 업황개선 전망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정보보안 기업들이 공공 부문 사업 지연에도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실적을 거뒀다. 하반기에는 보안 수요 증가와 함께 연기됐던 공공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공 부문 감소에도 선방

24일 업계에 따르면 안랩은 올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억원)보다 25.4% 증가했다. 매출도 1194억원으로 전년 동기(1094억원) 대비 9.2% 늘었다. 안랩 관



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등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고른 성장을 보인 가운데, 특히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 플랫폼 ‘안랩 CPP’ 등 클라우드 제품군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버보안 합작법인 ‘라킨’을 포함한 해외 사업 확대가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상반기 영업손실이 3억원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18억원)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매출은 492억

원으로 전년 동기(444억원) 대비 11% 증가했다. 올해 보안 솔루션, 서비스 등 전반적인 사업 분야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라온시큐어는 영업손실 39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을 줄였으며 매출은 248억원으로 3% 늘었다. 지니언스는 영업이익 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6% 감소했으나 처음으로 상반기 200억원을 돌파했다. 외부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제로 트러스트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우수 인력 확보로 비용이 지출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회사는 전했다.

■공공사업 진행·기업 투자 본격화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으로 인한 기업, 기관들의 보안 투자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된 투자가 본격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미뤄졌던 공공 부문 사업들이 집행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공공 사업 집행이 덜 되면서 공공 부문이 안 좋았지만 SKT 해킹 사고 여파로 투자를 조금 서둘러 하는 곳들도 있어 민간 부문 실적이 조금 괜찮았다”며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인사가 정리 되는데도 공공 부문 사업이 진행되고 기업들의 보안 투자가 본격 확대되면 하반기에는 보안업계 업황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성 LS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2019년 이후 최초로 보안 소프트웨어 3·4분기 구매 예정액이 2·4분기 구매 예정액을 초과했다”며 “내년에도 공공 부문 제로트러스트 적용 정책과 민간 부문의 보안 강화 흐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solidkij@fnnews.com 구자윤 기자

지란지교시큐리티, 서브소프트 인수

“AI 내재화 속도… 보안 서비스 강화”

지분 40% 확보… 최대주주로
연내 AI 서비스 순차적 출시

지란지교시큐리티는 인공지능(AI) 보안 서비스 강화 목적으로 AI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 서브소프트 지분을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브소프트 지분 40.4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서브소프트는 2011년 설립한 소프트웨어(SW) 개발사로 모바일데이터관리(MDM), 모바일 백신 등 모바일 보안 사업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최근 데이터 분석, 데이터 라벨링, AI 모델링에 특화된 AI 솔루션 개발로 기술 영역을 확장했다. 지난해 12월 지란지교시큐리티 관계사 지란지교데이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프라이빗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지식관리 솔루션 ‘AX웍스’의 공동 개발·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이번 인수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력 보안 솔루션의 AI 내재화 전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양사는 빠른 기술 협력으로 연내 메일보



조원희(왼쪽) 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와 조성환 서브소프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란지교시큐리티 제공

안(이메일 아카이빙), 콘텐츠 무해화(CDR), 문서중앙화에 AI를 적용한 서비스의 순차 출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 이후에도 서브소프트의 기존 경영 체제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란지교 그룹 편입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조원희 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는 “AI 활용 기술 및 인재 확보와 AI 기반 보안 서비스 강화 목적으로 이번 인수를 추진했다”며 “속도감 있는 AI 내재화 추진과 더불어 AI 기반의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팽동현 기자

BTS도 대기업 총수도 당했다

중국인, 해킹으로 380억 챙겨

국내 웹사이트서 개인 정보 빼내
은행 예금·가상 자산 등 가로채
법무부, 태국서 붙잡아 국내 송환

법무부는 국내 웹사이트를 해킹해 재력가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한 뒤 수백억원을 가로챈 해킹 조직 총책을 태국에서 찾아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명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정국(본명 전정국·28)도 해킹 피해자 중 하나라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총책 A(34)씨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해킹 실력자로 알려졌다. 그는 태국 등지에서 해킹 범죄 단체를 만들었고,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웹사이트 여러 곳을 해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돌렸다. 여기엔 BTS 멤버 정국을 비롯해 재계 순위 30위 안에 드는 재벌 총수,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국은 해킹 직후 소속사가 조치에 나서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A씨 조직은 해킹을 통해 모아둔 개인 정보로 '알뜰폰'을 대거 개통해 돈을 빼돌렸다.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금융 계좌와 가상 자산 계정에서 예금을 빼돌린 것이다. 이들은 주로 수

감자나 사망자 등 대포폰을 개통해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해킹 당시 구속돼 있던 한 기업인은 25억원가량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380억여 원이다. 중소기업자들이 운영하는 '알뜰폰' 통신사가 주요 이동통신 3사 대비 보안에 취약한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A씨를 찾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A씨가 지난 4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태국 정부에 A씨의 긴급 인도 구속 청구를 보냈다. 긴급 인도 구속 청구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 신병을 우선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A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패스트 트랙'을 거친 것이다. 태국 정부는 법무부 청구를 접수한 지 2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태국 현지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태국 대검찰청·경찰청 관계자들과 송환 방식·시점을 논의했고, 이날 새벽 A씨를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민준·안상현 기자

“수술비, 테더로 낼게요” 이런 결제 방식, 일상이 된다



쇼핑·결제·환전... 생활에 침투한 스테이블코인

은행망이 없어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시스템이 전 세계 통화 흐름을 뒤흔들고 있다. 복잡한 결제 절차, 높은 수수료 등 은행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든 것이다. 한국에선 통화 주권 훼손, 자본 유출 등 걱정거리가 많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과 부채 증가 우려 등이 제기된다. 이 신종 통화는 과연 사회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정부와 암호화폐 업계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고,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더중앙플러스 머니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다룬 다각도로 조명한 연재물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도연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기존 통화시스템과 스테이블코인 비교

기존 통화시스템	구분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코인) 시스템
정부, 중앙은행, 은행 등 제도적 주체	신뢰 중심	프로토콜, 코드, 스마트컨트랙트 등 시스템
발행 주체에 대한 법·제도적 보증	신뢰 방식	기술적 설계와 자동화된 실행을 통한 증명
정부의 국제 상환 의무, 중앙은행 운영 결제망 등	주요 신뢰 수단	알고리즘 기반 발행 제한,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동 상환 등
“누가 발행·운영 하는가?”	신뢰 작동 논리	“어떻게 설계되고 작동하는가?”
제도권 권위에 기반한 외부 보증	신뢰 구현 방식	내재된 구조와 코드로 자동 검증

자료: 헤시드 오픈리서치 “디지털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그래픽=김호준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홈플러스 합정점. 입구에 들어서면 특이한 자동입출금기(ATM) 한 대가 눈에 띈다. 비트코인과 테더(USDT,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디지털 ATM(DTM)’이다. 영국인 취업준비생 로베르타가 여권과 얼굴을 인증하고 비밀번호를 누르자 전자지갑 QR 코드가 인쇄된다. 전자지갑에서 이용자가 보유한 테더 중 원화로 인출할 금액을 선택하자 실시간 시세(코인베이스 기준)를 적용한 금액만큼 ATM 운영사 다윈KS로 테더가 송금된다. 이후 5분가량 불법 의심 거래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로베르타의 이메일로 ‘돈을 찾아가도 좋다’는 메시지와 QR 코드가 들어온다. 이 QR 코드를 ATM에 입력하면 원화가 인출돼 나온다. 로베르타는 “테더를 소액 보유하고 있는데, 여행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인출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명동 거리에 위치한 환전소 머니랩. 다른 환전소와 달리 이곳에는 기존 외화는 물론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 등 암호화폐도 원화로 환전에 준다는 광고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다. 달러·유로·위안화 등 법정화폐는 대면 창구에서, 암호화폐는 전용 ATM(CTM, Crypto ATM)을 이용하면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환전소 운영자 김진석(가명)씨는 “한 번 암호화폐 ATM을 이용하면 사람들은 다시 찾아와 계속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트·병원·백화점까지 - 일상에 침투

한국에서도 대형마트와 백화점·환전소 등 스테이블코인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확산하고 있다. 지금은 전용 ATM을 이용해 테더를 원화로 인출한 뒤 쓸 수 있지만, 이르면 10월부터 원화 인출 없이 곧바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크립토포스)

1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담보 10월 전용 단말기 국내 도입

2 외국인 규제·수수료 자유로워 국내 찾는 외국인들 자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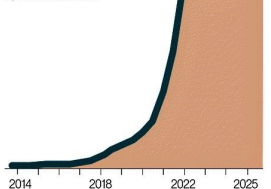
3 정부, 통화 주권 훼손 등 우려 전문가 “거래 막을 방법 없어”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인출할 수 있는 디지털 자동입출금기(ATM)의 모습. 김도연 기자

전 세계 암호화폐 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

자료: Coinatmradar



가 일선 병원과 백화점 등에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에서 관련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현행 규제와 상관없이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국채·예금 등을 담보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든 암호화폐다.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단점을 보완해 등장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도이체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테더·서클 등 스테이블코인 연간 송금액은 총 27조6000억 달러(약 3경 8400조원)로, 글로벌 신용카드인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의 연 거래량을 넘어섰다. 송금과 상품 결제 등 일상에서의 사용도 증가했다. 코인ATM레이더에 따르면 전 세계 암호화폐 ATM 수는 2014년 단 10대에 불과했지만, 8월 24일 기준 3만9266대로 급증했다. 한국에서 암호화폐 ATM을 개발해 보급 중인 다윈KS의 이종명 대표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암호화폐 ATM 보급을 시작했을 때는 한 달에 1~2건 사용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루에 2~3건씩 쓴다. ATM 보급 대수도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천만원 성형수술도 즉시 결제”

암호화폐 업계에선 스테이블코인이 생활 경제 영역에 침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한국의 외국인 규제와 편의성을 꼽는다. 외국인이 국내에 미화 1만 달러(약 1380만원)가 넘는 외화를 들여오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환전소에서도 하루 2000달러(약 276만원)를 초과하는 외화는 환전할 수 없다. 송금도 은행 간 국제 송금망(SWIFT)을 이용하면 2~3개 중개 은행을 거쳐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수수료도 5~7% 발생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면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이내, 수수료도 0.1%대에서 송금할 수 있다. 가격대가 있는 성형·피부미용 등 의료 서비스나 초고가 브랜드 상품 등을 국내에서 구매할 때는 별도 규제가 없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하는 게 간편할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시한의사협회 등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 소재 라이언성형외과 최상문 대표원장은 “가슴 성형수술을 마친 외국인 환자가 스테이블코인·비트코인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며 “시대가 변할수록 이런 결제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게임 후 원화 못 믿어 - 월급 테더로”

지난해 비상계입 사태 등 정국 불안으로 원화 가치가 급락한 것도 국내 거주 외국인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자극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받은 원화를 테더로 바꿔놓거나, 아예 원화가 아닌 테더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종명 대표는 “외국인 중에선 한국에서 게임 같은 정치 불안이 수로 원화값이 급락하는 일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불법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령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보따리상이 남대문 등지에서 물건을 살 때 외국 환 반입 규제를 피해 테더로 대금을 결제하고, 국내 상인은 암암리에 불법 환전상에게 테더를 원화로 바꾸고 있다”고 귀띔했다.

해외선 이미 결제 수단 - 한국은 보수적

해외에선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산 중이다. 중심에 선 것은 핀테크·블록체인 기업과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다. 미국의 종합 결제회사 스트라이프는 지난 5월 비자 결제 망이 깔린 곳

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쓸 수 있는 카드를 출시했다. 미국의 핀테크 기업 파이팜은 직접 스테이블코인(PYUSD)을 발행해 사용자 간 수수료 없는 송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홍콩의 핀테크 기업 리타페이는 음식점·편의점 등 신용카드 망이 깔린 곳이면 어디든 쓸 수 있는 충전식 가상 선불카드를 개발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한국은행 등 정부 기관이 통화 주권 훼손, 국내 자본 유출, 불법 자금 거래 확산 등을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로서 이미 확산 중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 김중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한국 정부가 규제할 방법은 없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자 마땅치 않기 때문에 관련 생태계를 조성한 뒤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대비 신뢰도가 낮아 시장 수요가 미미한 게 현실이다.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환전하고 남은 잔돈 일부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정도다. 암호화폐 업계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이를 ‘글로벌 지역화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종명 대표는 “외국인이 1만원 어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살 경우 한국 안에서는 1만1000원만큼 쓸 수 있게 재정을 지원하면 수요도 생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R코드를 스캔해 The JoongAng Plus에 접속하면, 돈이 되는 ‘머니랩’의 보다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혁신 이메일 보내듯 송금”

히스 타버트 서클 사장 인터뷰

급성장 중인 미국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회사 서클(Circle)의 히스 타버트 사장(President)이 “앞으로 는 지금처럼 해외 송금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쓸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A10면**

타버트 사장은 22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서클은 이메일을 보내듯 돈을 옮기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송금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많아 스테이블코인발 혁신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기준으로 수표를 쓰면 최종 정산까지 수일이 걸리며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수수료 6~7%를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더 넓게 보면 은행 계좌조차 없는 사람도 세상에 많다”고 지적했다.

타버트 사장은 미국 재무부 차관보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2023년 7월

최고법률책임자(CLO)로 서클에 입사했고 지난 1월 사장 자리에 올랐다.

타버트 사장은 서클은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아니라 ‘인터넷 금융 인프라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버트 사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미래 금융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만큼 한국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 자산과 대체불가토큰(NFT)을 위한 구입 자금부터 디파이(DeFi·탈중앙 화금융) 시장 투자 자금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국과 같이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먼저 해소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버트 사장은 “특히 한국처럼 다 른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는 국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화 기자**



“시장은 미국산 스테이블코인 원해” 테더 저격한 서클 사장의 자신감

히스 타버트 서클 사장 매일경제 인터뷰

“스테이블코인은 투명성과 준법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대형 기관, 나아가 개인들도 미국 회사가 만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고 싶을 것이다.”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발행회사인 서클의 히스 타버트 사장(President)은 22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서클은 경쟁사와 달리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다”며 “한국과 아무 관련 없는 가수가 스스로 K팝이라고 칭하면 거부감이 들 듯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미국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엘살바도르에 본사가 있고 규제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테더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준 테더(USDT)의 시가총액은 1670억달러로 서클의 USDC(671억달러)보다 크다.

단 송금액 기준으로는 USDC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RWA.xyz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USDC

서클, 테더와 달리 뉴욕 본사 단순한 코인발행사가 아닌 금융 인프라기업 진화 추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당장 계획없지만 韓과 협력

의 송금액은 9조1136억달러로 전체(20조8485억달러)의 43.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USDT는 미국 외 국가에서 달러를 보유하는 데 주로 쓰이지만 USDC는 미국에서 실제 거래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던 시절 가상 자산에 부정적이던 미국 행정부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에 주목해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게 타버트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고 결제 시장을 바꿀 기술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



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타버트 사장은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이끌어가고 싶어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길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요 금융사고위 관계자 등과 ‘월례이 만남’을 이어간 타버트 사장은 방한 이유에 대해 “한국이 전략적 기회가 있는 국가”라며 “한국이 가상자산을 제도권화하려는 만큼 서클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가 가져올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단 ‘서클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장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계획은 없다”며 “추후 한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서클이 기술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선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클은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넘어 금융 인프라스트럭처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맞춤형’ 레이어1 블록체인인 ‘아크(Arc)’를 출시했다는 게

타버트 사장의 설명이다.

이더리움 가상머신(EVM)과도 호환돼 기존 블록체인 개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거래 수수료(가스비)도 USDC로 지불할 수 있고 실시간 환율 조정 역시 가능하다. 그는 “수많은 대형 기관 등 파트너들과 협업하면서 새로운 블록체인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들은 변동성이 높은 네이티브 토큰으로 가스비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고 보안성과 결제 완결성 및 확장성을 원했는데, 아크는 이 같은 수요를 모두 해결했다”고 밝혔다.

서클은 블록체인 간 USDC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CCTP 기술,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인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CPN) 등도 개발한 바 있다.

한편 타버트 사장이 매일경제TV와 진행한 인터뷰는 23일 오후 5시 매일경제TV 유튜브에 업로드된다. 또 다음달 5일 오후 10시 30분에 매일경제TV 방송으로도 공개된다.

이종화 기자

내년부터 '디지털화폐'로 국고보조금 지급 ... 세계 첫 실험

기재부, 한국은행과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

내년부터 일부 국고보조금이 현금·바우처 대신 디지털화폐(예금 토큰)로 지급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폐로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고 행정·금융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다. 공공부문에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공공부문 도입 세계 최초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협력해 내년 상반기 디지털화폐·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은이 구축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부 국고보조금 수급자에게 디지털화폐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연내에 디지털화폐를 지급할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디지털화폐는 한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블록체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해 국고보조금 수급자 전자지갑(스마트폰 앱)에 송금한다. 화폐는 기존 통화가치와 연동되고 한은의 디지털 장부인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다. 한은의 CBDC와 다른 점은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CBDC는 현금처럼 어디에서

든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의 디지털화폐는 국고보조금 관련 수급자·사업자 사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예컨대 설비투자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받으면 이 화폐를 건설·자영업체처럼 지정된 사업 거래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화폐는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만큼 보조금 오남용을 막을 것으로 정

스마트폰 '전자지갑'으로 송금

112兆 보조금 오남용 방지 가능
수급자들 사용처 엄격하게 제한
수수료 아끼고 지급시간도 단축
지역화폐 등으로 확대 할수도

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올해 역대 최대인 112조3000억원 규모로 늘어나면서 부정 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쓴 사례가 630건을 기록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였다. 연 구개발(R&D) 지원금이나 시제품 제작 지원금을 술자리에서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쓰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기존 보조금은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다시 거래처로 송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가 발생했다. 디지털화폐는 보조금 수급자가 거래업체의 스마트 지갑에 바로 지급할 수 있어 수수료를 아끼는 것은 물론 지급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구윤철·이창용 '경제 투톱'도 성패주목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화폐 사용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도 디지털화폐로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정책 효과도 높일 수 있다. 특정 지역이나 업종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소상공인·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디지털 신원 확인을 기반으로 개인별 전자지갑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지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중고 거래 등 개인 간 거래와 가맹점 허위거래(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걸러낼 수 있고 사용 추적도 쉬워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조율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도 상당한 관심을

디지털화폐 주요 내용

발행 주체 시중은행 (한국은행은 시스템 제공)	지급 방식 전자지갑에 디지털화폐 송금
발행 목적 국고보조금 지급	지급 대상 시범사업 대상 국고보조금 수급자
기대 효과 보조금 부정 사용 방지 및 행정비용 절감	도입 시점 2026년 상반기
가치 법정화폐와 동일	

불어나는 국고보조금

(단위: 조원)

※2025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쏟고 있다. 구 부총리는 예산 집행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강조하며 적극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재

는 CBDC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환 기자

스테이블코인 주목하는 카드업계

공동 상표권 등록·협회 TF 구성

법제화 대비 합동 대응 ‘결제전용계좌 효과’ 기대

카드업계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발맞춰 공동 상표권을 출원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합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카드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지급결제 전용계좌 대신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24일 특허청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9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30종을 출원했다. 대상은 ▲CARD WON ▲CARD KRW ▲K-WONPAY ▲케이카드코인원 ▲케이원페이 등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자 대비 차원에서 공동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다.

협회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비해 TF를 꾸려 이달 초부터 주 1회 이상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TF에선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동향을 살펴보고 스테이블코인을 카드망에 연동하는 기술 구현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 카드사의 실무자들이 주 1회 이상 만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제도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기술적인 부분 설명도 듣고 있다. 현재 스터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협회는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도 진행했다.

개별 카드사도 상표권을 출원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날 기준 9개 카드사(삼성·신한·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NH농협) 중에서 삼성·NH농협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등록했다.

카드업계의 무게중심이 지급결제 전

용계좌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지급결제 전용계좌 도입은 카드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지급결제 전용계좌는 카드사가 직접 발행하는 계좌로, 소비자들은 이른바 ‘삼성카드 통장’, ‘신한카드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금 결제가 가능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업황이 침체된 카드업계의 돌파구로 주목받았다.

협회는 수년간 카드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제도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도입을 요청했으나 한국은행과 은행권의 반대에 무산됐다. 올해 4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각 카드사 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내용을 건의했으나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에도 지급결제 전용계좌 도입 건의를 준비했으나 금융당국 개편 지연과 맞물려 지지 부진한 상태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전용계좌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방향을 바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 여러 차례 지급결제 전용계좌 도입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스테이블코인도 도입되면 결제 과정이 지금보다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단 대비를 해놓자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라고 짚었다.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명시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부수 업무 혹은 겸영업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카드사가 합작법인 형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위해선 금융지주회사법상 제한이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

최정서 기자 emotion@

공공 데이터 개방, 우선순위 만든다

NIA, 데이터 선별기준 사업 발주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중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 중요 데이터 개방에 속도를 낸다. 단순 데이터 개방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중요 데이터를 개방,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이를 위한 '수요중심 공공데이터 개발 확대를 위한 중요데이터 선별 기준 및 관리방안' 사업을 발주했다.

NIA는 AI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기존 공공 데이터 개방이 단순 개방에 그쳤다면 민간 실질 수요에 맞는 맞춤형 데이터 개방·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이를 위해 중요데이터의 개념부터 정립한다. 개방 우선순위 선정 관점에서 중요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속성, 활용 범위, 목적 등을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며 민간 활용 수요가 많은 실시간·공공 서비스형 데이터'로 기준을 잡는다면 기상청 CCTV 기반 도로·날씨 정보, 암예방·검진 데이터 등이 구체적 데이터 목록이 될 수 있다.

'생성형AI 학습에 적합한 고품질·정형화된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의

경우 산불 위험 예보 분석 이미지, 토마토 개화 이미지 데이터, 지하철 역사 내 CCTV 이상행동 영상 샘플데이터 등이 구체 데이터로 분류된다.

이 같은 중요데이터 선별 기준에 이에 맞는 데이터 목록을 만들어 우선순위에 맞춰 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행정·서비스 중심 분류 방식이 아니라 △미디어 △안보 △질병 △마케팅 등 도메인 요구사항과 데이터 특성·목적 등을 고려한 분류 기준을 만든다.

개방 우선순위 설정 역시 단순 규모만 따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 파급력 △활용 가능성 △사회현안 연계성 등을 수치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적용한다.

실제 공공 현장에서 중요데이터 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정성평가' 지표에 중요데이터 목록을 활용할 계획이다.

NIA는 "활용가치·AI 적용 가능성·경제적 파급력 등을 반영한 정량적·정책적 우선순위 기준 미흡으로 실제 민간 기업·학계 등에서 수요가 높은 데이터에 대한 체계화된 전략적 개방이 어려웠다"며 "체계적·효율적 공공 데이터 개방을 위해 중요데이터를 선별, 데이터 개방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략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LG AI대학원 나오면 석·박사 인정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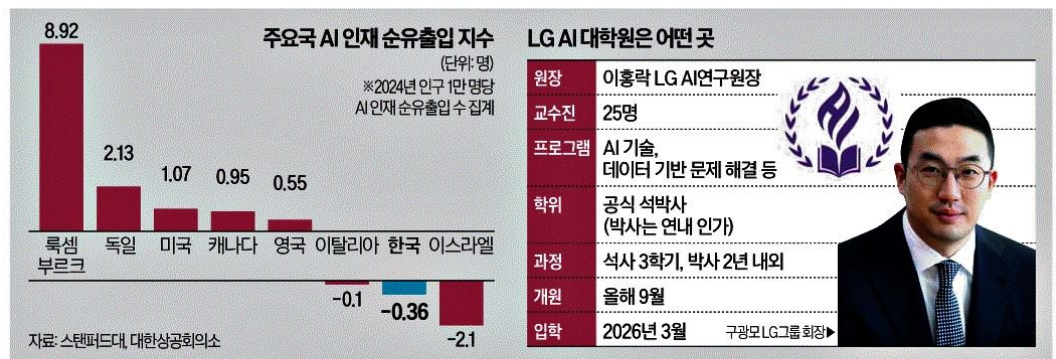
사내 대학원 첫 공식 인가

LG AI대학원이 최근 국내 최초로 교육부에서 '사내 대학원' 공식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LG AI대학원 졸업생은 일반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정식 학위를 받는다. 인공지능(AI)을 미래 먹거리로 꼽고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R&D)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AI대학원이 공식 대학원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본지 2024년 11월 26일자 A2면 참조

LG는 24일 "LG AI대학원이 다음달 30일 서울 마곡동에 있는 K스퀘어 마곡에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발표했다. AI대학원은 LG가 2021년 시범 운영을 거쳐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개교했다. 지난 2월 세 번째 사내 석사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외부에선 학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기업은 전문대 또는 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학위를 인정받는 사내 대학만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교육부 인가를 받은 사내 대학원 졸업자도 일반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석박사 학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LG AI대학원도 공식 대학원으로 발 빠르게 전환한 것이다. 현



일반 대학원과 동등한 학위 수여 내달 석사학위 과정 30명 모집

구광모 회장 "최고 인재들이 최고 R&D 환경서 최고 성과"

AI 인재 확보에 전폭 지원 나서

재 석사 학위만 인가받은 LG AI대학원은 올해 안에 박사 과정 인가 절차도 완료할 계획이다.

LG는 다음달 AI학과 석사 학위 과정 입학생 30명을 모집해 내년 3월 입학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초대 대학원장은 세계 10대 AI 연구자로 선정된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연구원장(부사장)이 맡는다. 교수진은 산

업 현장과 학계에서 다양한 AI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으며 전문성을 갖춘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AI대학원은 최신 AI 기술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전을 결합해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2년 내외의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해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AI 인재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LG AI대학원은 산업, 연구, 교육을 연결하는 융합 플랫폼"이라며 "LG가 구축하는 AI 교육 생태계를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한국의 AI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AI대학원 출범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LG가 주력하는 AI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정점에 있다. LG그룹의 AI 두뇌 역할을 하는 LG AI연구원은 국내 대학원생에게 세

계 최고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형 인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AI연구원은 AI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취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 AI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인 'LG 에이머스'도 운영하고 있다.

LG의 AI대학원 출범엔 구 회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돼 있다는 게 LG의 설명이다. 그는 평소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R&D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다"며 사내 AI 인재 육성을 전폭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구 회장은 2018년 6월 회장 취임 이후 첫 대외 행보로 'LG R&D의 심장'으로 불리는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했고 첫 해외 출장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석·박사 채용 행사를 찾았다.

황정수 기자

“B2B 확대 침병” LG, 15조 상업용 세탁기 시장 공략

美최대 세탁展 ‘클린쇼’ 참가
고효율·대용량 신제품 선보여
현지 1·2위 세탁업체 계약도



LG전자가 23일(현지 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세탁 및 섬유 관리 산업 전시회 ‘클린쇼 2025’에 참가했다.

LG전자가 성장 잠재력이 큰 미국과 유럽 상업용 세탁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소비자 가전 판매를 넘어 기업간거래(B2B)를 미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편하는 모습이다.

LG전자는 23일(현지 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세탁 및 섬유 관리 산업 전시회 ‘클린쇼 2025’에 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북미 상업용 세탁 시장 공략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LG전자는 231㎡ 규모의 대형 전시 공간을 마련해 호텔·병원·기숙사 등 다양한 B2B 고객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였다. 핵심은 대용량 상업용 세탁 가전 ‘LG 프로페셔널’이다. 세탁물을 분석해 최적 코스를 설정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저온

제습 방식의 인버터 히트 펌프를 적용한 건조기 등 고효율·고성능 기술을 집약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취임 후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B2B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LG이노텍을 제외한 별도 기준으로 2023년 B2B 매출이 20조 원을 넘어섰다. 2030년까지 B2B 매출 비중을 45%로 확대하는 목표에서 상업용 세탁 사업은 성장의 첨병으로 꼽힌다.

LG전자는 상업용 세탁기 시장 공략을 위해 통합 관리 솔루션까지 제공하며 차별화를 이뤘다. 상업용 세탁가전 전용 앱 ‘런드리 크루’는 원격 제어, 오류알림, 스마트 진단 등 관리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LG전자는 지난해 미국 2위 세탁 솔루션

기업 위시에 이어 올해는 1위 업체인 CSC서비스웍스와 공급계약을 체결, 기술력과 내구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국내에 먼저 선보인 LG 프로페셔널 라인업을 연내 북미와 유럽 시장에 출시해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선다.

글로벌 상업용 세탁 시장은 성장 전망도 밝다. 시장조사 업체 스카이퀘스트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32년까지 108억 달러(약 15조 1038억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류재철 LG전자 HS사업본부장은 “AI와 고효율로 차별화된 프리미엄 라인업을 앞세워 미국 B2B 생활 가전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사진은 런던 피카딜리 광장에 위치한 대형 전광판의 예고 영상 상영모습. LG전자 제공

LG, 올레드TV서 故 박서보 작품 재해석

‘프리즈 서울’ 영상 국내·외 송출 을 통해 송출된다.

LG전자는 오는 9월 3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적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5’를 국내외 대형 전광판에서 예고 영상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예고 영상은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런던 피카딜리 광장, 뉴욕 타임스스퀘어 등 해외 랜드마크 2곳과 서울 시청, 광화문에 위치한 전광판 2곳

영상은 한국 단색화의 거장 고 박서보 화백의 대표작품인 ‘묘법’ 연작 중 홍시색 작품이 LG OLED 기술을 통해 재탄생 된다는 메시지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했다.

회사는 이번 프리즈 서울에서 예고 영상 속 작품을 포함한 박서보 화백의 묘법 연작 회화와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2025년형 LG 올레드 TV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상현 기자

강남 젊은 고소득층에 ‘스마트 가전’ 제시 억대 TV·초고가 빌트인 주방 직접 체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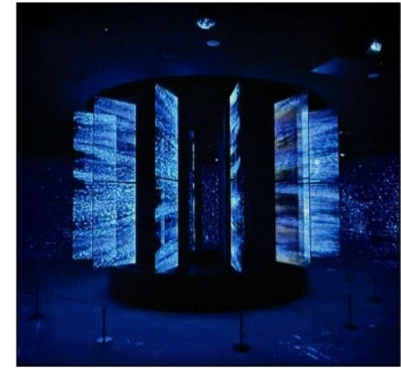
르포 LG 청담 플래그십 ‘D5’

지난 22일 서울 청담동 한 가운데 LG전자가 새로 문을 연 ‘플래그십 D5’.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1층 벽면에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구현된 고(故) 김창열 화백의 작품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몇 층 더 오르자 이번엔 136인치 초대형 TV ‘LG 매그니트 AM’이 전시장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은 이 제품의 가격은 수억 원 대로, 공간 전체가 ‘초프리미엄 브랜드 경험’을 위해 꾸며져 있었다.

LG전자는 기존 베스트샵 강남본점을 전면 리뉴얼하며 D5를 소비자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꾸몄다. 핵심 고객층은 고소득층이다. 프리미엄 소비가 집중되는 강남에 자리한 만큼, 초대형 TV나 초고가 빌트인 가전 등을 전면에 배치해 고급 리빙 수요를 직접 겨냥했다.

이에 4층엔 초대형 TV ‘LG 매그니트 AM’ 뿐만 아니라 초프리미엄 빌트인 주방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공간 인테리어 가전 ‘오브제컬렉션’이 실제 거실과 주방 형태로 전시돼 있었다. 평일 오전에도 상당 부스마다 고객들이 앉아 프리미엄 가전 구매와 구독 상담을 받고 있었고, 제품을 눈으로 확인하며 설명을 듣는 모습도 포착됐다.

LG전자는 D5를 강남권 프리미엄 소비층 뿐만 아니라 브랜드 경험을 중시하는 영제너레이션(YG) 고객까지 아우르는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보기술(IT) 제품이 모인 2층 ‘그램 존’에서는 20~30대



지난 22일 방문한 LG전자 플래그십 D5 5층에 위치한 비전홀에서 투명 OLED를 활용한 조형물에 LG전자의 비전을 형상화한 이미지가 나오고 있다. 아래 사진은 D5 2층에 정보기술(IT) 제품들이 전시돼 있는 모습 사진=임수빈 기자

방문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주방·에어케어 가전 공간 3층에선 세탁기와 에어컨의 핵심 기능을 투명 OLED로 시각화해 보여주며 생활가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리뉴얼 과정에서 5층에 체험형 공간인 ‘비전홀’도 새롭게 조성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리튬 패권의 미래

美 리튬채굴 거절한 LG화학… ‘자원전쟁 시대’ 대비 부족

LG화학은 최근 미국 아칸소주와 오리건주에서 리튬 채굴 사업 참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이 회사는 미국 테네시주에 양극재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주 정부는 원료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LG화학이 미국내 리튬개발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은 그러나 시황 부진을 이유로 개발보다는 시장에서 리튬을 구매하는 편을 선택했다.

리튬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채굴보다 구매를 선호하는 흐름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LG화학을 비롯해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국내 기업들도 직접 추출보다 장기 구매계약을 통해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략광물의 가격 변동성을 지나치게 의식할 경우 자원 안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리튬은 배터리 양극재 원가의 60~7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리튬 구매를 선호하는 건 지지부진한 가격

리튬가격 3년새 8분의 1토막
채굴보다 구매하는 방향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
미래 자원 안보 고려해야

때문이다.

22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리튬 가격은 2022년 11월 최고가인 581.5위안(약 11만3000원)에서 올해 8월엔 68~73위안으로 8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전기차 시장 성장이 더디면서 리튬 역시 수요가 크게 성장하지 않고 있다. 또 중국은 정제 기술 향상으로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등 주요 리튬 화합물을 저가로 공급하고 있다.

반면 미 아칸소주의 리튬은 리튬이 녹아 있는 소금물에서 직접 추출하는 신기술 개발 단계에 있어 생산 단가를 명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 게 LG화학 측의 설명이다. 최근 중국 닝더스다이(CATL)도 채산성



악화 등의 이유로 대형 리튬 광산의 생산을 최소 3개월간 중단하기로 한 것도 개발사업을 주저하는 이유로 꼽힌다.

미국 주 정부가 LG화학에 ‘러브콜’을 보내는 배경엔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이 있다. 앞서 LG화학은 2023년 미국 테네시주에 연간 6만 t 생산 능력을 갖춘 미국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을 착공했다. 미국 중동부에 위치해 고객사 납품과 원재료 수입에서 지리적 이점이 크며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격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자원 안보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한국엔 리튬 광산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배터리 산업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주종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리튬을 확보해놔야 한다”며 “만약 중국이나 칠레, 호주 등에서 수출을 제한할 경우 그대로 가격 충격을 받으면서 자원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리튬 생산업체 알버마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전기차 수요 증가로 2030년 세계 리튬 수요가 37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리튬 공급량은 290만t에 그쳐 약 80만t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은 중국의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리튬 생산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미국 지오프레임 에너지는 텍사스주 버논 산의 직접리튬 추출 프로젝트를 올해 말 착공해 연간 약 8만3500t의 탄산리튬을 생산

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내 리튬 수요를 100%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칸소주에는 약 500만~1900만t의 리튬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 세계 수요를 맞추고도 남을 양으로, 엑손모빌 등 다수의 에너지 기업들이 채굴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있다. 오리건주와 네바다주 경계에서도 2000만~4000만t 규모의 리튬 점토층이 발견됐으며 매장된 리튬 가치는 최대 1조4800억달러(약 2047조7280억원)로 추정된다.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장은 “글로벌 자유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다”며 “‘자원 전쟁’ 혹은 ‘자원 민족주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아닌 자원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사전에 자원을 비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성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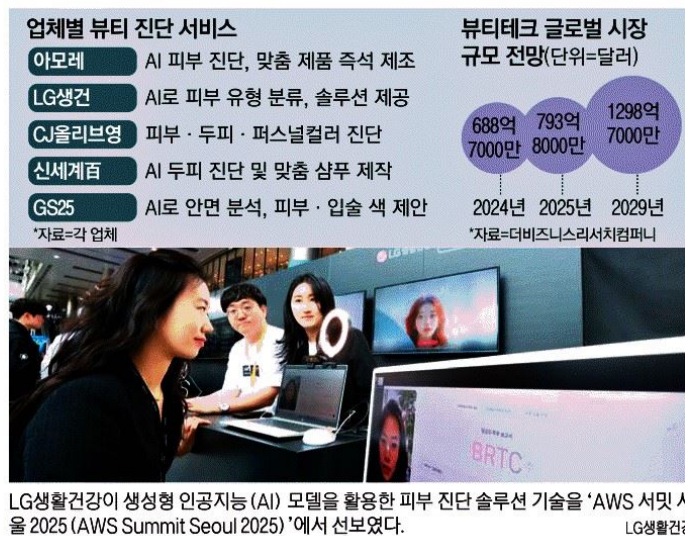
AI로 피부진단·컨설팅, K뷰티 초격차 시동

인공지능 서비스 속속 개시
화장품 판매 넘어 영역 확대

아모레, 맞춤제품 즉석 제조
월평균 이용자 1500명 돌파
CJ올영, 피부·두피 셀프진단
연내 100개 점포서 서비스

‘K뷰티’가 화장품 판매를 넘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피부 진단 서비스와 고객 개인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자체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가 하면 주요 유통 채널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K뷰티가 ‘첨단 신무기’를 앞세워 경쟁국들과 격차를 확 늘려 나갈 태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피부 및 두피 타입과 퍼스널컬러를 측정할 수 있는 셀프 진단 기기를 올해 안에 100개 점포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K뷰티의 ‘메카’로 떠오른 CJ올리브영이 소비자들에게 체험형 서비스를 경험하게 하고, 관련 제품 구매로 이어지도록 패키지형 서비스를 마련한 셈이다. CJ올리브영은 혁신 매장 ‘올리브영N 성수’를 시작으로 센트럴 강남타운점과 범계타운점 등 3개 매장에 전문 뷰티 컨설턴트를 두고 피부, 두피, 퍼스널컬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



사 관계자는 “서비스 개시 후 2주 새 센트럴 강남타운점에서 뷰티 서비스를 체험한 고객만 1만명을 돌파했다”며 “개인의 피부와 두피 유형을 진단한 뒤에 따라 단계별 상품을 추천해 줄 뿐만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까지 해주다 보니 고객 반응이 뜨겁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 성수·용산 등 4개 매장에서 맞춤형 뷰티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4곳의 매출은 맞춤형 서비스 론칭 이후 적게는 63%에서 많게는 977%까지 늘어났다. 특히 현장에서 제품을 주문·제조해 바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헤라 실키 스테이 커스텀 매치’ 서비스는 월평균 이용객만 1500여 명에 달한다.

최근엔 글로벌 고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며 방문객 중 외국인 비중이 85%에 이르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AI 피부 진단 서비스인 아모레몰 ‘스킨노트’ 서비스는 작년 1월 오픈 이후 누적 진단 건수가 16만건을 넘어섰다.

LG생활건강의 피부진단 솔루션도 주목받고 있다.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한 이 기술은 고객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면 AI가 사진을 분석해 16가지 피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피부 분석 결과에 따라 관리 방법과 제품을 추천해준다. LG생활건강은 LG AI연구원과 손잡고 내년부터 AI 기반 고효능 성분을 담은 화장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LG AI연구원

의 신물질 발굴 특허 AI 모델인 ‘엑사원 디스커버리’로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린다.

유통업계에서도 주요 뷰티업계 전문가들과 손잡고 첨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예컨대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6월 시코르 강남역점에 체험형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별도로 차렸다. 대표 서비스는 AI 기기를 통해 두피 상태를 진단하고 최적의 상품을 찾아주는 ‘맞춤 샴푸 세럼 제작 서비스’다. 매장에 상주하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고객에게 맞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관련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일평균 약 20~25개 팀이 이용하는 가운데 외국인 고객이 60~70%를 차지하고 있다”며 “K아이돌 메이크업 시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관련 제품의 구매로도 활발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심지어 편의점들도 AI 뷰티 서비스를 본격 도입했다. GS25는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GS25뉴안녕인사동점에 ‘AI 뷰티 디바이스’를 설치해 체험형 서비스를 2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연내에 10개 점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이 디바이스 화면에 얼굴을 비추면 카메라가 피부, 눈, 입술을 스캔한 뒤 피부 명도, 채도, 색온도 등을 분석해 개인별 퍼스널컬러를 안내해준다. 얼굴형을 정밀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 AI 스타일 컨설턴트가 메이크업, 헤어, 주얼리 스타일도 제안한다.

박윤균·정슬기 기자

LG유플,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근절 맞손

의심 데이터 취합, 경찰청 공유
피해자 긴급도움 받을 수 있게
전국 매장 현장 대피소로 운영

LG유플러스가 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경찰청과 지난 22일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기술 협력이나 정보 공유를 넘어 보이스피싱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LG유플러스는 통신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탐지되는 이상 패턴과 악성 앱 제어 서버 로그, 의심 문자 착신 번호, 중계기 단말 정보 등 보이스피싱 관련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오른쪽)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2일 LG유플러스 울산 사옥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데이터를 제공하고 경찰청은 이를 자체 범죄 데이터베이스(DB) 및 수사 정보와 연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AI 앱 '익시오(ixi-O)'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활용해 확보한 피싱 의심 데이터를 경찰청과 공유함으로써 피싱 범죄에 대한 사전 인지부터 즉각적인 대응, 사후 추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민간 기업이 협업한 사례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AI 기술을 활용한 협업은 국내 통신 사업자 중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 고객 보호에도 협력한다. 양측은 LG유플러스 매장을 피해 고객의 '1차 대피소'로 지정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초동 대응부터 경찰 인계로 이어지는 긴급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안선제 기자